

말씀과 기도로 조국 지켜내자

한미기독교지도자 연합기도성회 및 세미나 열려

한미기독교지도자 연합기도성회 및 세미나가 15일 오전 LA만 나교회(남강식 목사)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미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준비위원회와 2018동계올림픽국민연합회가 주관했다.

70여명의 한미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는 사회 김종원 목사(미국 준비위원장), 인사 신신목 목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부회장), 찬양 남가주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 설교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 격려사 구기조 목사(남가주인문사회 증경회장), 축사 엄규서 목사(남가주교협 부회장)·이성락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 회장), 광고 장영기 목사(한국 준비위원장), 축도 김사무엘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조찬 기도는 성영길 목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부회장)가 했다.

신신목 목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12월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 한미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



조국의 평화와 대선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과 미국의 교계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합성회와 세미나를 열었다.

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북한에 동조하는 좌파 종북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의 운명은 제2의 월남이 되고 만다. 교회 지도자들의 간절한 호소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희민 목사는 설교에서 "겸손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2부 세미나는 전광훈 목사(영성훈련원 원장)의 애국포럼으로 이어졌고 3부는 2018년 동계올림픽 미주지역 발대식으로 진행됐다.

축사를 전한 엄규서 목사는 "교회 지도자의 사명은 주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2부 세미나는 전광훈 목사(영성훈련원 원장)의 애국포럼으로 이어졌고 3부는 2018년 동계올림픽 미주지역 발대식으로 진행됐다.

토마스 맹 기자

교사가 당신의 자녀에게 게이 퍼레이드를 권한다면?

SB48 동성애 교육 "남 일 아니다"

동성애 교육 저지를 위한 발의안 PRE 서명 운동이 6월 11일 까지로 연장된 가운데 미주북음방송이 동성애 교육 대처를 위한 목회자 세미나를 14일 오전에 개최했다.

40여명의 한인 목회자 및 2세 사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먼저 지나 글리슨(Gina Gleason)이 강연을 했다. 글리슨은 치노힐 갈보리체플의 Faith and Public Policy 디렉터로, 현재 SB48 교육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 ClassAct위원회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PRE 발의안이 나오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현재 공립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긍정적으로만 교육하게 돼 있다"며 "진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왜곡해서 가르치는 것이 문제다. 부모가 학교에 찾아가 동성애 교육을 반대할 권리조차 없다"고 했다.

그녀는 현재 미국과 비슷한 상황인 캐나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소개했다. 그녀는 "캐나다 공립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게이 퍼레이드에 대해 알려주며, 심지어 가 보라고 권유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classact2012.com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자료를 통해 최신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SB48 법안을 뒤집기

위해 서명 운동과 자원봉사, 기부 참여해 달라 요청했다.

이어 California Released Time Christian Education의 부회장 캐롤린 쉐클(Carolyn Schenkel)은 '공립학교에서 성경공부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 강연했다.

그녀는 "릴리스 타임에 아이들이 원한다면 학교 근처 공원에 가서 얼마든지 성경공부를 할 수 있다"며 "주 1회 이뤄지는 성경공부가 적은 것 같지만 자녀들의 기독교 정체성 확립에 큰 도움이 된다. 후에 그들이 중고등 학생이 되어서 성경공부 클럽을 만들게 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있다. 릴리스 타임의 성경공부는 중·대학교에서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릴리스 타임에 성경공부를 원한다면 California Released Time Christian Education(909-702-0385)이나 미주북음방송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밖에 치노밸리교육구의 이사인 제임스 나 씨와 Pacific Justice Institute의 회장인 브래드 다커스(Brad Dacus)가 각각 강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성애 교육 반대를 위해 합심해 기도하기도 했다.

토마스 맹 기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가인권위가 미주 한인들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열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UCLA 찰스영도서관 컨퍼런스룸에서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수렴한다는데 취지로 제9회 북한인권 국제심

포지엄을 개최했다.

남가주 한인 및 주류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을 알리고 국제사회 공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미 학계, 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심포지엄에는 라종일 전 주영대사, 존 단컨 UCLA한국학연구소장, 데이빗 강 USC한국학연구소장, 데이빗 호크 미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라 전 주영대사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인성의 위기(Crisis of Humanity)'라는 시각에서 북한인

권 문제를 지적한 기초발제를 맡았다.

이어 제1세션에서는 김성영 인권위원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대해, 제2세션에서는 데이빗 강 소장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탈북 후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탈북자 2명이 직접 참석해 자신들이 경험한 북한 실상을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한 내용을 북한인권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하나 기자

TAX 문제 전문 자산동결 및 은행구좌 차압해결, 일리세금상담, 세무감사대리
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사관 40년 경력의 세법전문가, CPAs

Clients	Case (Dec/11-Jan/12)	Results
Mr. Hwang, W	IRS \$62,317	합의 \$8,218
Mr. Lemmonier, H	FTB \$118,874	합의 \$1,700
Ms. Wilson, M	IRS \$450,190	합의 \$20,160
Mr. Kim, H (C. Corp)	BOE	Sales Tax Audit Audit Dismissed
Mr. Rogers, A	IRS \$327,280	Levy lifted & \$500/mo
Mr. Farley, C	IRS \$3,112,350	합의 \$0

TAX HELP TEAM (213) 248-0221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무료 전화 877-580-2424 /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가길 젊은 세대를 위한 예배

가나안교회에서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길 젊은 세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3부 예배가 매주 12:45분 젊은 세대를 위한 예배로 열립니다.

예배시간
1부예배 : 오전 8시
2부예배 : 오전 11시
3부예배 : 오후 12시45분

가나안 교회 담임목사 이철 Tel (562) 866-0980, 5027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www.cannanchurch.org

한인교회 어린이사역 미래는 있는가

2004년 바나리서치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기독교인의 64%가 18세 이전에 복음을 영접했다. 18세에서 24세 사이에는 13%, 24세 이후에는 고작 23%가 복음을 영접했다. 이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어릴 때 복음을 더 잘 영접한다는 점이다. 현재 기독교인 10명 중 8명이 24세 이전에 회심을 경험한 셈이다. 이 설문을 진행한 조지 바나 씨는 "가정과 교회, 선교단체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대상은 10대 초반의 청소년이란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85%가 4세에 14세 사이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며 목회자나 선교사의 80% 이상이 어릴 때 예수를 영접한다. 어린이사역자들 사이에서는 "성인 20명을 전도하면 1명이 돌아오지만 어린이 20명을 전도하면 19명이 돌아온다"는 말도 있다.

미주지역 한인교회 어린이사역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본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한인교회 실버사역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는 특별

대담에 이어 이번에는 어린이사역에 관해 토론해 본다.

이 대담에는 크리스 윤 목사, 김숙영 전도사, 이옥희 전도사, 함윤경 전도사가 참여했다. 크리스 윤 목사는 교육심리학 박사로 캘스테이트대, 아주사퍼시픽대에서 교수를 역임했으며 초등학교 교사 경험도 갖고 있다. 한인교회에서 23년간 어린이사역을 전문적으로 해 왔다. 김숙영 전도사는 현재 LA사랑의교회 교육부 디렉터를 맡고 있으며 어린이사역 현장에서 20여년에 가까운 경험과 노하우를 자랑하는 베테랑이다. 어린이전도협회(CEF) 간사로 섬기고 있는 이옥희 전도사는 LA 지역 어린이사역의 대명사로 할 만큼 전문성과 헌신을 인정받으며 CEF를 통해 각 교회 어린이사역을 네트워크하고 있다. 함윤경 전도사는 현재 웰치미션대학교에서 M.Div. 과정을 밟고 있으며 LA사랑의교회에서 유아유치부 사역을 하고 있다.

이론과 현장, 네트워크와 사역,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LA 어린이사역을 진단, 점검해 본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LA의 어린이사역은 잘 되고 있습니까?

윤: '과거에 비해서'라는 전제가 붙는다면, "좋아졌다" 혹은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사역자들도 많아졌고 교회에서 갖는 관심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아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인교회 안에서 어린이사역에 대한 인

식은 성인사역의 들러리, 혹은 데이커에 수준인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규모가 있는 교회일지라도 부흥회를 하면 교사들까지 부흥회에 참여하면서 담당 어린이사역의 일손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부흥회에 온 어린이 50명을 2명의 교사가 돌봐야 합니다. 어른 부흥회에 맞추어 어린이 부흥회를 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어른들이 은혜받은 동안 어린이들은 간신히 케어를

받는 수준에 그치고 맙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교육부서 도입보다 언제나 성인들의 모임이 우선시됩니다. 목장이나 교구 모임과 교육부 모임이 겹치면 대부분 교육부 모임을 포기합니다. 성인들에게만 집중된 교회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고 어린이사역의 부흥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담임목사의 어린이사역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히 보입니다.

교육목사일 때와 담임목사가 되었을 때 보게 되는 교회의 전체적인 그림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교육목사일 때는 교육부 하나만 맡으면 되지만 담임이 되면 교육부의 중요성을 알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에서 그 중요성만큼 지원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밖에요. 특히 이민교회는 설명 대형교회라 해도 늘 생존모드로 목회할 수 밖에 없기에 담임목사가 어린이사역에 특별한 관심을 쏟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만 그 사역을 실제로 담당하는 사역자들의 소명감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초등학교에서 성적 평가가 낮게 나왔을 때, 교과서를 바꾸자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건물을 더 짓자고 하는 학교도 없습니다. 교사를 다그치거나, 교장을 해임하거나, 모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어린이사역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바꾸거나 건물을 확장

하기보다 그 사역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섬기는 주님의영광교회는 1년에 수차례에 걸쳐 교사 컨퍼런스를 갖고 교육과 훈련을 합니다. 교사와 함께 어린이사역의 주체라 할 수 있는 부모들을 위한 세미나도 10회 정도입니다. 계속 사역자들을 훈련하면서 어린이사역이 교회와 가정에서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역자들이 알아야 할, 현장의 가



크리스 윤 목사

김: 저는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는데에 담임목사의 비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담임인 김기섭 목사님이 어린이사역, 크리스천학교 사역에 큰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에 성인회중들도 그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건물에 교육부가 모일 공간이 모자라자 성가대가 부역으로 나가겠다 자청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성가대가 부역에서 연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부가 그만큼 중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담임목사가 어린이사역에 비전을 가져야 하고 그 비전을 성인회중들과 충분히 나눌 때 어린이 사역이 꽃필 수 있습니다.

-이민교회에서 어린이사역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목회자가 적지 않은데요. 현실 목회에서는 그 중요성을 많이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부분 목회자들이 교육목사를 거쳐 부목사, 담임목사가 되는데,

-성인사역 중심의 생존모드 한인교회에서 어린이사역이 과연 중요한 건가요?

김: 미래 없으면 끝 아닙니까? 현재 이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인교회 구성원의 다수를 우리 자녀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면 한인교회는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과거에 이민이 줄어들 때 과감하게 차세대에 투자한 교회는 현재도 부흥하고 있지만 1세 위주의 목회를 고집한 교회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한인교회의 생존이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는데 미래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긴박함을 담임목사, 교육목사, 교육부 담당자, 교사가 모두 깨닫고 성도들과 비전을 나누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이사역에 있어서 부모들의 관심이나 담임목사의 노력도 중요하



김숙영 전도사

TOP MEDIA
교회설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훈장받은 1등 명품 김영귀 알카리 이온수기

목회자 할인 프로그램
무이자 12개월 할부 프로그램

산업훈장에 빛나는 김영귀 이온수기는

- 1 특별히 좋은 물맛** 특허권을 가진 두개의 초정밀 8단계 정수필터
- 2 믿을 수 있는 제품** 자체 연구소와 공장을 지닌 30년 역사의 전문회사
- 3 거품없는 가격** 좋은 제품, 좋은 가격 공짜선물, 끼워팔기 없습니다.

물의 과학화, 의료화 - 김영귀가 앞서갑니다.
알카리 4단계 / 산성 4단계 / 정수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A/S, 필터교환이 염려되십니까
30년 역사의 자체브랜드, 김영귀이온수기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소비자가 추천하는 명품 알카리 이온수기
한국과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이제 1등 명품 김영귀알카리 이온수기입니다

독일, 스위스, 러시아, 국제 발명 전시회에서 7회연속 금상 수상
의정소비자가 선정한 '명품' 대상
2011년 여성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
2011년 소비자가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생명 건강 동서바이오 **Tel (213)300-9762**
955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한인회관 옆 웨스트관과 산마리노) **대리점 모집중**



이옥희 전도사

장 중요한 목회 포인트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함: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육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혼이나 육은 어린이가 성인보다 그 수준이 낮을지 몰라도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영에 있어서만은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지력이 다소 성인에 비해 떨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깨닫는 데에는 결코 성인 못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 열정과 찬양하는 기쁨이 충분하며 설교를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동일한 영을 갖고 있기에 복음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어린이들이 성인에 비해 한 주제에 집중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사역자들은 다양한 기술과 시청각 교재를 사용해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들은 말씀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어린이들이 복음을 이해하도록 하는 접근법이 성인들이 볼 때에는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복음을 깨닫는 어린이들이 부모를 위해, 교회를 위해, 친구의 구원과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결코 어린이에게만 표면적으로 보이듯 재미나 즐거움에만 집

중된 것이 아닙니다.

-사역이 중요하다, 사역자가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사역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사역에 여전히 전문사역자가 부재한 현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윤: 저도 아마 대학교수라는 풀타임 직업이 없었다면 어린이사역을 23년이나 꾸준히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미국교회와 한인교회의 극명한 차이는 바로 사역자에 대한 대우가 아닌가 합니다. 미국교회는 어느 분야든 전문가, 스페셜리스트가 있어서 그 사역을 전문적으로 발전시켜 가는데 한인교회는 담임목사와 부목사, 교육목사의 사례나 대우에 있어서 차이가 큼니다. 신학생 시절 교육목사를 열정적으로 하더라도 사역자가 30대, 40대가 되면 교육목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제 주변에서 어린이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던 동료 목회자들도 40대 후반이 되면 담임목사 자리를 찾아 자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문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없다면 교사나 평신도 사역자라도 잘 자리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사역에 자원봉사를 하는 평신도가 있는데 그의 소명감과 비전이 분명하다면 신학교에 진학해 파트타임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어린이사역자가 되도록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린이사역을 하는 전문사역자로 성장해 갑니다. 이럴 경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역이 가능합니다. 또 그 교회에 내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기에 목회 비전이나 사역 비전의 일치도 쉽습니다.

김: 대부분 교회가 작다 보니 이 사역에 비전있는 평신도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미자립교회들은 영어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육부 교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 자녀나 장로 자녀가 교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는 이 경우에는, 타주로 떠나지 않는 한 이 사역을 그만 둘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 사역을 그만 두기 위해 타주로 유학을 가거나 직장을 구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집니다. 문제는 한인교회 내에서 전반적으로 어린이사역이 홀대되면서 평신도 사역자들의 헌신도 기대치가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함: 저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누군가 이 사역을 하겠다고 한다면 100% 이상 추천을 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사역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기쁨은 무어라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이사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성, 여성이란 성별이 아닙니다. 바로 어린이를 향한 사랑입니다. 교사에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이 확신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영어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경험이 있거나 없거나, 어머니이거나 아니거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어린이를 사랑한다고 다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전도협회에서 하는 것처럼 세미나도 필요하고 컨퍼런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한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자아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비전과 뜻을 가진 사역자들이라면 이 사역을 충분히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여성들이 홀대받는 이 상황은 우리의 소명감과 믿음으로 헤쳐 나가면 됩니다.

한인교회는 5천, 1만명이 되어도 크리스천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하고 숫자 자랑만 합니다.

도무지 길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 어린이들은 축복받지 못하고 대형교회 어린이들은 축복받는다? 아닙니다. 누가 깨어 있고 누가 기도하고 누가 일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작은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중에서 미국과 세계를 변화시킬 미래의 지도자가 태어나리라 믿습니다.

김: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린이사역 연합운동을 제안해 봅니다. 일정에 한 40개 정도 교회의 어린이가 모여서 연합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CEP에서도 1년에 한번씩 여름 연합 캠프를 하기도 합니다. 전에 제가 집회를 마친 후, 타교회 여 집사님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어린이가 20명도 채 되지 않지만 부흥회를 하고 싶다고 문의해 왔습니다. 저는 "집사님에게 비전이 있다면 숫자는 문제 되지 않는다"라며 그 부흥회를 도왔습니다. 행사 당일 무려 80명의 어린이가 그 집회에 참여했고 어린이들이 놀라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린이사

역에 돈이나 사람 수는 결코 제한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함: 저는 오히려 많은 목사님들이 교육목사를 거쳐, 부목사, 담임목사가 되는 이 현실 속에서 희망을 보고 싶습니다. 교육목회를 경험하지 않고 바로 담임이 되신 분들보다 교육목사를 거쳐 담임이 되신 분들이 아무래도 어린이사역의 중요성과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지 않을까요? 우리 눈에는 단절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좋은 미래를 위해 사용하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어린이사역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대면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와 같은 사역입니다. 이민교회가 목회의 현장에서 겪는 문제가 늘 적지 않지만 어린이 복음화 사역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담임목사님들에게 비전을, 교육목사님들에게 소명을, 교사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담임목사님들에게 비전을, 교사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담임목사님들에게 비전을, 교사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담임목사님들에게 비전을, 교사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귀한 의견들을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형 기자

어린이사역은 이민교회의 미래

담임목사 비전, 사역자들 소명감 필수 교회 연합하면 더 큰 시너지 기대돼

-남성 목회자들이 교육목사, 부목사, 담임목사라는 순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여성 사역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장기간 어린이 사역에 헌신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사역이 홀대되는 것처럼 헌신적인 여성 사역자들도 홀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자의 부재, 혹은 그만한 대우가 따라 주지 않는 현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 인간적 관점에서 "해결점이 없다"는 답 밖에 없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의 경우, 사역자가 부족하고 큰 교회도 생존 모드 속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명감 혹은 영어만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사나 사역자에 투자를 오늘부터 한다고 해도 당장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역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큰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서 작은 교회 어린이사역을 돕기 위한 운동을 벌인 적도 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국교회는 성도가 200명만 되어도 크리스천학교를 운영하는데

김: "우리 교회 교육부를 담당하는 리더가 여자"라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놀라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저는 그동안 어린이사역을 하며 무시도 많이 당해 봤고 '여자는 안된다'는 선입견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너무도 분명했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성도들의 신임을 얻어 가지 시작했습니다.



함윤경 전도사

Advertisement for '굿모닝 보험' (Good Morning Insurance) with contact info: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Advertisement for '암 치료의 희소식' (Rare News of Cancer Treatment) with contact info: T. 213-235-5800, 213-252-9036.

Advertisement for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with contact info: 323-735-6365,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Large advertisement for 'LOS ANGELES ORT COLLEGE' featuring job opportunities, ESL program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race and Greg.

성공 신드롬 버리고 목회 본질로 돌아가야

타교회에 예배당 빌려주는 후한 인심, 올림픽장로교회

Doing 아닌 Being으로 자유함 맛보는
영성 목회 해야

“처음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신학교에서 배운 교회성장학이라는 세련된 통찰력을 겸비한 나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거라 철떡같이 믿었다. 아내를 포함해 아이들과 친지들의 기도와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뛰어난 조력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훌륭한 전략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출석 교인수는 좀처럼 늘지 않았고 급기야 예년에 비해 출석교인 수가 하나 둘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온갖 목회적 프로그램을 총동원 해 봐도 도무지 성장할 기미가 안 보인다. 아... 오랜 정체를 혼돈의 늪에서 빠져나올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렇게 성공 신드롬을 꿈꾸다 좌절과 실패를 맛보고 고통의 심연을 헤매는 목회자들에게 그는 말한다. “목회는 사역(Doing)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Being)의 문제”라고.

올림픽장로교회 정정수 목사의 말이다. 32년 전 디자인 공부를 위해 유학 왔다가 LA 한인타운에서 전도돼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정 목사. 그는 4.29 흑인 폭동 이후 한인타운에서 교회를 개척해 격동의 세월 20년을 살아 오면서 교인수 300명의 지금의 올림픽장로교회를 일궈 낸 장본인이다. 온화한 인상에 주름살이 깊게 패인 그 얼굴엔 지난 30년간 이민교회 현장에서 목회의 방법과 본질 사이에서 고민해 온 흔적이 엿보였다.

“지난 30년간 한국교회는 ‘사역 잘하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라는 개념 속에서 오로지 제자훈련과 성경공부 등 Doing에만 포커스를 뒀죠. Being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Doing에만 치중돼 크리스천의 성품 개발이 안되니 교회 안에서 각종 분쟁이 발생했고 사회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문제가 된 거죠. 신학교나 세미나에서도 오로지 교회성장과 성공만 강조하다 보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감과 무능감 속에 자포자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선 Doing이 아닌 Being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 목사 본인도 처음엔 성장을 지향하는 목회의 큰 흐름 앞에 어쩔 수 없이 경쟁대열에 끼여 성공만을 바라보며 쉼새 없이 뛰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분말이 전도되어 버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Being으로 초점을 옮기게 됐고, 그제서야 진정한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성공이라는 개념은 Doing

에서 비롯된다. 반면, 행복이라는 개념은 Being에서 만들어진다.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즉 존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Doing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목회자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해도 해도 끝이 없으니 지치게 되는 것이다. Being에 초점을 맞추면 교회가 크던 작던, 사역이 잘 되던 안 되던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Being을 깨닫으면 말이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성공주의 목회로 인한 경쟁 때문에 성공한 소수의 목회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90%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실패감 속에 휩싸여 좌절과 고통 속에 힘들어 한다. 사역보다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이 필요하다. 사역 중심으로 가면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가운데 일이 주는 성취감은 있겠지만 그런 진정한 행복은 아니다. 존재, 즉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성공을 위해 하나님께 떼 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자아를 발견하는 기도를 통해 영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리야 한다.

이러한 깨달음이 정 목사 자신에게 유익을 끼쳤을 뿐 아니라 교인 전체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교계와 대사회적인 나눔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개교회주의보다 연합사역에 비중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남 잘되게 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철학을 지닌 올림픽장로교회는 창립 이래 타인종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화두로 삼고 히스패닉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3년간 렌트비를 지원한 바 있다. 11년간 히스패닉교회와 동고동락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그 결과 그 교회는 부흥해서 독립해 나갔다.

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선교단체나 기관 등에 거의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다. 1-2백불씩 내긴 하지만, 한달에 2만 4천불씩 렌트비를 감당해야 하는 올림픽장로교회 입장에선 손해보는 정사다. 하지만 빌려주는 입장에선 거의 ‘내 교회’처럼 쓸 수 있으니 고마울 따름이다.

현재 JAMA를 비롯해 밀알선교회, 더처치 등 교회 및 선교단체, 그리고 3개의 합창단이 예배당을 빌려쓰고 있다. 이밖에 한인연장자센터도 이 교회를 빌려 무료식품 배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개교회주의보다 연합사역에 의미를 두는 정 목사는 “꼭 우리가 하는 것만이 선교는 아니다. 다른 단체가 하는 걸 도와주는 것도 선교”라며 “교회마다 경제



정정수 담임목사

적으로 어려워 렌트비 내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다른 선교단체들도 내 교회처럼 예배당을 쓰게 하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작다고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일을 하는데 동참하면 우리도 큰 일을 하는 것이 되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이민교회 노령화 대비한 새 모델 필요

1세 목회자로 이제 10년이면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에 접어든 정 목사. 그는 향후 이민교회의 노령화를 대비해 새로운 형태의 교회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민 1세대 중에서 50대가 마지막 세대입니다. 저 역시 이 ‘세시봉 세대’에 속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2세대들이 벌써 50대까지 넘어 와 있습니다. 10년만 지나면 1세대, 2세대 60세가 넘어가니 소위 ‘리타이어 교회’로 변해가기 마련입니다. 외곽지역 교회는 자녀를 기르는 가정 이 많아서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한인타운에 위치한 교회들의 경우 자녀를 기르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노령화 현상이 겹쳐서 드러나고 있고, 10년만 지나면 이민교회는 완전히 노인들만 남아 있는 교회들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당장 눈 앞에 있는 현실이죠. 2세대들은 다 밖으로 나가니까 이민교회를 감당할 2세대들은 점점 줄어들고, 나이드는 1세대들만 감당하다가 결국엔 미국교회처럼 쇠퇴할 것이라 봅니다. 어차피 시대적 흐름이니까 막을 수는 없지만, 향후 20-30년간의 과도에 있어 이민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면 또 다른 형태의 교회가 필요하겠죠.”

정한나 기자

성품 변화돼 교회 섬기는 일꾼되라

나성순복음교회 임직예배 드려



나성순복음교회 임직예배 식순자들과 임직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성공보다 성품이 먼저입니다.”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는 지난 13일 주일 안수집사 10명, 권사 8명, 명예권사 5명을 세우는 감사예배에서 이같이 권면했다.

진 목사는 “예수를 닮아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는 진정한 성공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임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성공을 좇지 말고 성품이 변화되어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예배에는 교회가 속한 순복음

북미총회 LA지방회의 임원인 이흥교 부회장, 임현철 서기 등 목회자들이 참석해 임직자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했으며 특별히 북미총회의 이영규 중경총회장이 참석해 축사했다.

교회 사역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임직자들, 특히 안수집사 가운데 3명은 EM에서 배출됐다. 이 감사예배에는 EM도 참석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렸고 특히 1세 임직자들이 그들에게 동역의식을 갖고 축하하기도 했다. 김준형 기자

예정합동 해외선교대회 열린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가 총회 설립 1백주년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나성열린문교회에서 해외선교대회를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총신대 학부 또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회자들과 선교사, 관련 교회 장로, 평신도 리더, GMS 선교사 등 120명을 대상으로 한다.

공동대회장 박현성 목사는 “우리의 모교단이 역사적인 교단 설립 100주년을 맞았다”며 “이 뜻깊은 행사에 많은 이들에 참가해 모교단의 위상을 높이고 장차 세계선교를 책임지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정합동은 지난 1월 서울에서 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사업 발대식을 갖고 1백년 역사를 회고하고 자성하

는 기회와 함께 다시 펼쳐질 1백년의 비전으로 비상할 것을 결단하기 위해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14일~16일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1만여명의 목회자와 장로가 모이는 목사장로기도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9월 2일에는 기도한국 2012대회가 열린다. 이밖에 총회설립 1백주년을 기념하는 교회 설립과 장로교 역사를 담은 1백년사와 인명록, 백서 발간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념 전시회, 신학 포럼, 속회별 기념대회 등을 잇달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해외선교대회는 기념 리셉션, 빛으로예배, 미래로예배, 4차례의 특강, 선교집회 등의 내용으로 이어진다. 문의) 714-504-4257 정한나 기자

성결교남가주기도회 월례 모임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 기도회가 지난 5월 14일 LA에 위치한 주님의총신교회(이종길 목사)에서 월례 기도모임을 가졌다.

1부 예배에선 최춘호 목사(로고스교회 담임)가 ‘다윗의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영적이고 성서적인 예배의 회복을 통해 감동적이고 성령 충만하여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자”고 설교한 후 참석자 전체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는 정석규 박사(한영신학대학 구약학 교수)의 ‘현대목회를 위한 구

약서서 해석과 설교’라는 세미나가 있었다. 3부에서는 주님의총신교회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목회 자료 보급과 목회자 도서비 지원의 순서도 가졌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총회에서 회장에 윤석길 목사(에덴선교교회), 부회장에 신현철 목사(알바인연합선교교회), 총무에 최재성 목사(남가주은혜로교회)를 임원으로 선출한 바 있다. 매년 대규모의 교역자가족수양회와 체육대회 등도 개최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 빅터 박 기자

NEW ORLEANS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 학생 모집 (2012년도 가을학기)

뉴올리언즈 침례신학 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2학년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1. 지원 자격
M.Div. (목회학 석사) 혹은 이와 동등한 학위 소지자
M.Div.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역 경험
M.Div. 과정 GPA 4.0만점에 3.0이상의 평균학점

2. 제출 서류 및 마감일
제출서류: 입학 원서 패키지는 아래 전화 및 이메일로 요청시 이메일로 발송
마감일: 2012년 7월 5일
입학 서류 심사 결과는 개별통지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3. 입학안내
유학생에게 1-20발급
Toefl 불필요
모든 세미나 및 워크샵은 아틀란타에서 진행

4. 프로그램 구성
워크샵 (3과목 6학점)
세미나 (6과목 18학점)
졸업논문 (6학점)

5. 입학문의
목회학 박사과정 Director (이종길 교수): 셀폰 (404)335-8150, 이메일 jglee@nobts.edu
한국에서 연락처 070-8245-8210
웹사이트: <http://www.nobts.edu/CME/korean-d.-min.html>

건축자들의 버린 돌

마태복음 21:42-46

장재효
서울 성은교회 목사



마 21:42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4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45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십시오 하고 46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아있더라

사편 118:22-23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건축자들에게 필요한 돌은 주춧돌입니다. 이것을 건축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쓸모없다고 내어 버리게 될 때 그 집은 머릿돌을 제공하신 이의 뜻대로 지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교회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율법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계약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릿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머릿돌의 가치와 용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문 밖에 갔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은혜계약의 성취라는 놀라운 축복을 스스로 거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1.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만일 머릿돌로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았다면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세계 선교의 본거지로 인류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을 것이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이 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첫번째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건축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 영적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들이 이스라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장로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머릿돌도 제공해 주셨음에도 그 설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 멋대로 설계를 하고 그 돌의 본질과 용도와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문 밖에 끌려나와 끌고다 언덕에 갔다 내어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 돌은 베드로전서 2:4-5에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을 짓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교회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머릿돌로 알아보지 못하고 갔다 버림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망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려진 그 돌의 가치와 용도를

전세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알게 해 주심이 오늘과 같아서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해 주시고 우리가 세계선교를 하는 것 또한 이 돌을 소개하는 복음을 전해 온 것입니다. 이 돌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은혜계약의 대상인 듯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계약에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요 사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12에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돌을 주실 대상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례를 받음으로 남자들마다 육체의 표식을 가졌고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 돌(Living Stone)을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너의 영적인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복락의 후사가 되도록 하라고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는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되고 있는 살아있는 돌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영적인 소망을 그르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머릿돌을 내어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43절)고 합니다. 허락된 그 나라 이스라엘은 하늘나라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신령한 소망을 가꿀 줄 몰랐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하늘나라를 허락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하십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에게만 머릿돌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갔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버리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로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신령한 성전을 짓고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소망만 가꾸는 백성이라 하면 하늘나라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어지고, 회개하고, 신령한 소망을 목적으로 믿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머릿돌을 삼은 신앙건축가가 되지만 하면 하늘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구원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2.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돌이 세계만방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돌을 세계각국에 소개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와 물질로 애를 쓰며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돌에 대한 가치를 바로 알아보고 믿어지고, 회개해서 그 돌 위에 자기 집을 건축하는 사람은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어서 성령으로 하늘 소망에 결실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교회마다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와 물질로 선교 뒷바라지를 하고 애를 써서 이 돌의 가치와 용도를 소망적인 복음으로 애타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외면하며 사는 인생들의 결과는 어마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돌은 건축자의 머릿돌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고 신령한 소망에 믿음을 잘 건축하는 사람은 그 돌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의 구원을 얻지만 그 돌의 가치를 알아볼만 하도록 증거하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와 불신앙으로 거부하며 발악하고 대적했다가 스스로 세상조건에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돌 위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인생은 깨어져 박살나고 말 것입니다.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도록 가루가 되어 흩어진다고 하셨으나 그 인생의 심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52 이하에 보면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했을 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마음에 가책을 느꼈음에도 그들은 회개할 생각은 않고 도리어 이를 갈며 돌을 던져 스테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달았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

다. 이들은 생명의 반석으로 소개되는 예수님, 산돌이시며 보배로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이 돌의 본질과 가치와 용도를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영문 밖에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3.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이 돌에 붙어있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불신자들이입니다.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 돌에 붙어사는 이들은 구원을 얻고 심판에도 동참을 합니다. 이 돌에 붙어사는 이들은 이 돌의 움직임을 따라 함께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돌에 붙어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3-4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믿어지고, 철저히 회개해서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자라야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끗하지만 하다고 산돌인 예수님 곁에 있어도 붙어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절대주의 신앙,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만 사는 믿음은 예수님께 붙어사는 자가 되고 성령이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자를 예수님께 완전히 붙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며, 그 돌이 떨어져 부서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어지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가장 안전한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KTN.DIGITAL TV	미서부 주일 새벽 5시 30분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교일보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중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담임목사 청빙

Albany, NY에 위치한 올바니 한인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을 초청합니다. 본 교회는 PC USA에 소속된 교회이며, 자체성전을 가진 41년된 교회입니다.

가. 자격

1. PC USA에 소속 또는 가입요건이 되시는 분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한국 또는 미국내 신학교에서 안수를 받으신 분
3. 2년이상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
4. 미국 거주 및 취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신 분
5. 한국어에 능통하고, 영어구사에 불편이 없으신 분

나. 제출서류

1. 이력서(추천인 명단 3인 이상 포함)
2. 자기소개서(목회비전 및 신앙간증 포함)
3. 가족소개서(가족사진첨부)
4. 최종학교 증명서 및 목사안수 증명서 사본 각1부
5. 설교 테이프 또는 영상설교(가능하면 설교원고 첨부)

다. 서류마감: 2012년 6월 15일

라. 서류제출처: 이메일접수 및 일반우편접수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1. 이메일: kpcalbany@pcusa.com
2. 일반우편: Nam Soo Lee
23 Lincoln Mall
Schenectady, NY 12309
3. 문의사항: 이남수 장로 (518) 345-4887 또는 namsoo1212@gmail.com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본 교회에 대한 안내는 교회 웹사이트, www.kpcalbany.org에서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올바니 한인 장로교회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사업체 비영리단체 설립 해산 및 장부정리(Quickbook)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방법
- 신용카드 빚, 부동산관련 세금문제해결(1099-C)
- 저소득층 세금환급(EITC)
- Payroll & Sales Tax 보고(Paycheck service)
- IRS, SBOE, EDD, FTB 세금문제해결(Levy & OIC)
- ITIN(개인 납세번호)신청 및 공증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이정은 CPA

Tel (213)387-2004

Email상담환영 : chungleecpa@hotmail.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국제사회 참여 vs 고립, 무엇이 해법인가

인권 침해 겪는 北주민의 생존 위해 투명한 지원 필요

→ 1면 관련 기사

데이빗 강 USC한국학센터 소장은 “북한인권 개선은 국제사회에 북한을 참여시켜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강 소장은 이날 UCLA 찰스영 도서관 컨퍼런스룸에서 국가인권위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을 국제사회와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외국과의 무역을 통한 수익으로 충분한 양의 식

품이 수입되도록 하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것은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북한 주민들이 계속해서 기아에 허덕이며 위험한 생존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끔찍한 인권 침해에 가담하고 있다”면서 “국제고립은 이같은 침해를 줄이는 데에 일조한 것이 거

의 없으며, 식량난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강 소장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국제지원으로부터 차단시키는 전략은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이는 상당히 미심쩍은 공리적인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발제에 앞서 김성영 인권위원은 UN, EU 등 국제사회 및 시민단체와의 공조를 통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우선

북한 주민이 외부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해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식량, 구급약품 등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적 차원에서 추진하되, 그 분배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국제사회의 적절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하나 기자

우리 가정이 달라졌어요

미주한국인심리학회 가정세미나 열린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9일 파사데나장로교회(성현경 목사,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에서 미주한국인심리학회(대표 리차드 손, 이하 KAPA) 주최로 가정세미나가 ‘우리 가정이 달라졌어요’라는 주제 아래 개최된다. 시간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이고 등록은 당일도 가능하며 등록비는 없다.

전혜성 심리치료가사 ‘우리 가족 제대로 이해하기 프로젝트’라는 주

제로 기질에 따른 특성, 혈액형에 따른 학습법, 성격 유형에 대한 강연을 할 예정이고, 명 최 심리치료가사 ‘행복한 부부 비결’이라는 주제로 행복한 부부 생활의 필수요소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저스틴 최 임상심리학 박사 ‘자녀 관계를 통한 자녀의 잠재력 극대화 시키기’라는 주제로 자녀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문의) 213-234-8268

토마스 맹 기자

담장 너머로 찬양의 은혜 전하고자

12년간 교도소 선교에 앞장 선 뉴호프교도소선교회(대표 조성도 목사)가 주최하고 재소자 출신 찬양팀인 Praise Servants, 테너 최양성, LA드림색소폰앙상블, 미주복음방송합창단이 함께 하는 Praise over the walls 찬양 콘서트가 열린다.

18일 오후 7시에는 주님세운교회(박성규 목사), 19일 오후 6시에는 LA한인침례교회(박성근 목사)에서 열리는 이 콘서트의 수익금은 교도소 내 신학교 후원에 사용된다.

뉴호프교도소선교회는 2003년 증가주 에브라함주립교도소에서 30명으로 시작해 현재 32곳의 가주 주립교도소와 타주 11곳을 포함해 총 43곳 주립교도소에서 300여명의 재소자 신학생들에게 신학 교재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 5월 7일에는 치노주립교도소에 하베스트비디오 칼리지를 설립해 40여명의 장기수 재소자에게 신학 교육을 시작했다. 후원 문의) 213-700-7535

빅터 박 기자

커널대학교 가정상담대학원 시작

가정 회복과 건강한 개인·교회 세워갈 것



커널대학교가 가정상담대학원 입학설명회를 열고 학교의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학장 겸법률 목사가 학사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

1986년 한인 선교사 전문 양성 학교로 출발한 커널대학교가 수년간의 휴지를 지나 최근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학교는 전세계 미전도종족을 복음화 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시작했다.

현재 박태문 목사가 총장으로 있으며 강영화 박사, 김화자 박사, 금정진 교수, 심명구 박사, 덴 패터스 교수가 교수진을 구성하고 있다.

이 학교는 지난 5월 12일 오후 5시 가정상담대학원 오픈 하우스 기념예배를 드렸다.

학장인 금병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50여명의 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구성됐다.

부총장 심명구 목사가 설교했고 이사장 이현우 장로가 학교 역사와 비전을 소개했다.

이 장로는 “우리는 자비량 선교를 원칙으로 현재까지 약 8백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며 “그

들 가운데에는 일본 야쿠자계의 2인자를 포함해 38명이 목회자로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중국의 경우는 한의학을 중심으로 수많은 일꾼들이 양성돼 세계 각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케냐를 중심으로 해서는 9개 나라에서 사역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로는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시작된 가정상담대학원 과정을 통해 영적 전쟁의 치열한 현장인 가정의 회복을 도모하고 건강한 개인과 교회를 세워나아가는 데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관심과 뜨거운 기도를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이 과정을 오픈하며 전체 등록 학생들에게 특별 장학제도를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행정처(714-995-9988)나 학생처(714-287-2458)로 하면 된다.

빅터 박 기자

자녀와의 대화... 1분이면 족하다

사랑의빛선교교회, 2012 가정사역 축제 개최



사랑의빛선교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사역 축제를 열었다. 13일에는 양은순 총장이 자녀 교육에 관해 메시지를 전했다.

2012 가정사역 축제를 열고 있는 사랑의빛선교교회는 13일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His University 양은순 총장과 오부운 교수를 초청해 ‘보람찬 자녀교육(출2:1-10)’이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양은순 총장이 메시지를 전하고 오부운 교수가 자녀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조했다.

양 총장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설명했다. 그는 “자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한다”며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닮았다는 긍지를 심어줘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갖고 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기 자녀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것은 그 아이를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모른다”며 “이 아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다. 비교의식이 아니라 창조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자녀의 감정을 받아 주는 훈련도 중요하다”며 “보통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기 쉬운데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전하며 자녀와의 상담기법을 몇가지 소개했다. “아이와 대화할 때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 아이가 속상하더라도 마음이 풀린다. 아이가 호소하면 어떤 일을 멈추고 1분간 들어 주라. 1분이면 족하다. 그리고 마음을 알아 주라. 또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말로 표현해 주라.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게 상담학의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마음의 소원을 환상적으로 들어 주라. 자녀교육은 기술로만 안된다. 나와 자녀와의 관계가 신뢰와 존경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회에서 열리는 가정사역 축제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토마스 맹 기자

노형건 선교사 음악인생 40주년 콘서트



노형건 선교사의 음악인생 4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를 앞두고 행사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지난 10일 열었다.

노형건 선교사 음악인생 40주년 기념 콘서트 Gospel Talk 2012가 6월 2일 오후 7시 동양선교교회에서 개최된다. 이 콘서트는 글로벌메시야미션 후원을 위해 열리며, 오페라켄리포니아소년소녀합창단, 글로벌메시야여성합창단, 마가렛 리 등이 참여하는 등 다채롭게 펼쳐진다. 또 콘서트 중 노 선교사가 미주성시화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될 예정이다.

10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노 선교사(글로벌메시야미션 상임지휘자)는 “올해는 제가 음악을 시작할지 40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이제 문화 예술을 통해 2세들을 키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글로벌메시야미션 대표 송정명 목사는 “20년 전부터 문화사역자인 노 선

교사를 알고 교제해 왔다”며 “세상 문화 속에서 기독교 문화가 영향력을 드러내야 할 때다. 관심과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 공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8월에 한국에서 창단될 한국 여성메시야합창단과 9월 29일 맥아더파크 다민족 메시아 페스티벌, 7월에 있을 오페라켄리포니아소년소녀 합창단 한국 찬양선교 여행을 돕는 데에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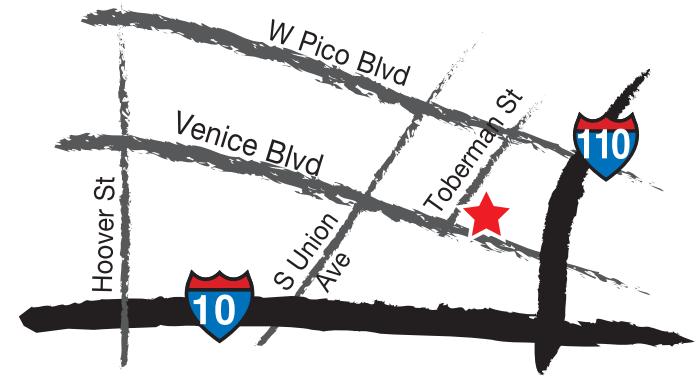
노 선교사는 중양대 음대를 졸업 후 국립합창단, 김자경오페라단 단원 및 주역으로 활동하다가 1980년 도미해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에서 M.M. 과정을 마치고 워싱턴오페라단에서 활동하며 Everett College 종교음악과 교수를 역임했다. 토마스 맹 기자

축 창립 5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

장로 윤석관, 이현기

안수집사 김장률, 정광훈, 최종민, 장세훈, 이창원, 오영동

권사 최복희



장소 : 갈릴리신학대학 예배실
일시 : 2012년 5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주소 : 1000 Venice Bl, Los Angeles, CA 90015

하나님의 긍지, 한국인의 긍지, LA의 긍지

나성소망교회 LA HOPE CHURCH

교육센터: 4055 Wilshire Blvd #308, Los Angeles, CA 90010
소망기도원: 3720 N. Mountain Springs Rd. Pinon Hills, CA 92372

담임 김재울 목사

문의전화 : 213-550-7377
4063 Ingraham St Los Angeles, CA 90005 Wilshire Park Elementary School (주일예배장소)월서파크초등학교강당

전방개척선교 동역하는 윌리엄캐리大

2대 총장 엘리자베스 스노델리 박사 인터뷰

선교를 위한, 선교적 대학 지향해

현대 선교의 흐름을 이끌어 온 거장故 윌리엄 캐리 박사가 1976년 설립한 윌리엄 캐리국제대학(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WCIU)의 엘리자베스 스노델리 총장을 만났다.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 위치한 윌리엄캐리국제대학은 미국세계선교센터(US Center for World Mission)와 함께 현대 선교운동의 중요한 축인 전방개척선교의 기지로,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 일선에서 사역하는 여러 선교회들을 지원하면서 그들과 동역하고 있다.

윈터 박사에 이어 2대 총장을 맡고 있는 스노델리 총장은 "개교 이래 복미주를 중심으로 전방개척선교 리더들과 동역해 온 윌리엄캐리국제대학은, 이제 국제적인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해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면서 "비영리 학생들의 언어 지원 교육을 위해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도서관을 통해 타 대학과의 활발한 자료 교류에 힘써 온 이 대학은 현재 윈터 박사의 애장 도서를 비롯해 그의 저서, 연구 자료들을 모아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여기에 돈널드 맥가브란 박사 등 저명 신학자들의 서적도 함께 소장될 예정이다.

대학 내에는 자체 출판사도 있어 도서관 및 리서치 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통한 연구활동과 함께 서적 출간도 용



스노델리 박사

광범위한 역사와 성경 문화 가르쳐

스노델리 총장은 "대부분의 신학교는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데에 집중돼 있는 반면, 윌리엄캐리국제대학은 미전도종족이 거주하는 각 선교지에 성경적 이념을 기반으로 한 학교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역사와 성경, 그리고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박사 과정의 경우 미국의 여타 신학교와 달리, 비서구권 신학 배경을 지닌 석사 학위자들도 진학이 가능하다. 현재 1백여 명의 학생들이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이 대학은 설립 당시 캠퍼스 구입에 관련된 예화가 특히 인상적이다. 윈터 박사가 수중에 있는 돈 1백 달러를 계약금으로 치르고, 나머지 필요한 재정 1천5백만 달러는 1백만명의 기부자들이 10불씩 모아 대지를 구입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동참하도

록 하면서 돈이 아닌 믿음으로 세워진 학교라는 이야기다. 이같은 설립 이념에 따라 대학 스태프들도 정치기 정신 하에 돈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핵심가치로 삼는다.

스노델리 총장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정과 관련해, "우리 대학은 학비를 많이 받으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교사 훈련이 우리 대학의 존립 목적이기에 이들 선교사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적은 학비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교사 배려하며 적은 학비로 공부 가능

그러면서 그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들이 내는 학비로 운영되는 데 비해 우리 대학은 자체 건물 관리를 통해 창출되는 부가수익으로 운영된다"며 "이는 타 대학이 하지 않는 실험적인 시도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허가는 받았으나 아직 미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유로 스노델리 총장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제사회에서 학력과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재 ICHE 허가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스노델리 총장은 내년도 계획에 대해 "캠퍼스 내 컨퍼런스를 개최할 공간을 따로 마련해 앞으로 선교사역에 관한 강좌를 많이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한나 기자

LA를 변혁할 컨퍼런스 열린다

쉐퍼드대학 주최로 목회자, 기업인, 직장인 대상



쉐퍼드대학교에서 TRANSFORMATION LA 컨퍼런스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10일 열렸다.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가는 사람들 선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7/7 크리스천도 있다. 이는 교회와 가정은 물론 직장에서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교회 사역자들과 평신도들에게 비전을 심어 교회도 부흥하고 평신도들의 직장 속 신앙 생활도 돕는 컨퍼런스가 준비됐다.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학장 살롬 김 박사)은 교회성장학의 대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박사, <변혁>, <사업을 위한 기쁨부임>, <기도 전도>의 저자 이면서 도시선교 전략가 에드실보스 박사, 인도네시아 공용기업 Lippo Group의 공동설립자이자 전 City은행 그룹인 도네시아 부사장인 로이 에두터타지 부

회장, 브리태니카 백과사전 전세계 판매 왕을 거쳐 현재 여러 기업의 사장과 회장, 고문을 맡고 있는 신성 회장, 실천 신학자로서 인성과 문화, 신학을 통합하는 사역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살롬 김 박사 등을 강사로 내세워 TRANSFORMATION LA 컨퍼런스를 6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가든 스위트호텔에서 개최한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박사는 "바울은 영향력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사용했다. 이것에 관해 다룰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참가 대상은 목회자, 기업인, 직장인이며 선착순으로 150명이다. 문의) 213-481-1313 토마스 맹 기자

"예수 닮기를" 주성선교교회 창립

많은 영혼 살리는 교회 되길



주성선교교회가 창립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나누고 있다. 주성선교교회는 이름은 주님이 친히 성령사시는 교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성선교교회가 13일 창립됐다. 창립 감사예배에서는 이철선 목사가 사회, 유병렬 목사가 대표기도, 김은철 풀러신학교 교수 사설, 이근환 목사가 헌금기도, 심형섭 목사가 축사, 박대근 목사가 권면을 맡았다. 손태정 담임목사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신인철 목사가 축도했다.

박대근 목사는 격려사에서 "구원받은 이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라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또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인정

을 받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했다. 손태정 목사는 "지난 10년 동안 무임으로 사역하며 힘든 시절이 많았다"며 "테니스를 칠 때 공에 집중해야 하듯이, 예수님께 집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손 목사는 2011-2012년 OC목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주님이 친히 성령사시는'이란 의미를 지닌 주성선교교회 비전은 개척사역이다. 이를 위해 이 교회는 큐티·가정·교육·기도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아버이주일 어른들 향한 다양한 잔치들 열려

나성소망교회, 창대교회 등에서 경로잔치 진행

지난 13일 아버지주일을 맞아 나성소망교회(김재울 담임목사)가 교회 부설 소망동산(Hope Herb Center)을 통해 60세 이상 실버 세대들에게 겨우살이 약초를 선물로 나눠주며 제품설명회 및 시음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앞서 주일에배에서 김재울 목사는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본문으로 설교를 전했다.

김 목사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보고 배운다"며 "룻이 누렸던 복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룻이 고백했던 어머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하기도 했다.

설교 후 김 목사는 부모님에게 드리는 시를 직접 낭독해 성도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그는 지금까지 사랑으로 지켜 주시고 키워 주신 부모님 은혜를 기리는



나성소망교회가 아버지주일 기념 행사에서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시를 발표했다. 이 교회는 창립 5주년을 맞아 오는 26일 오후 5시 30분 갈릴리 신학대(1000 Venice Bl. LA CA 90015, 213-389-8987) 예배실에서 임직식을 가질 예정이기도 하다.

한편, 샌버나디노에 소재한 창대교회

(이준준 담임목사)에서도 이 지역 어른들을 초대해 가운데 경로잔치를 주일 오후 4시 개최했다. 장구춤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됐고 점심식사와 선물도 제공됐다.

빅터 박 기자

양로병원 노인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대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우사랑교회에서 12번째 양로병원 봉사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차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이기기 위해 매일 찬송가를 암송함으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사오니, 이 대회를 빛나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 봉사자분들을 초청하오니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장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월 16일(토) 오전 10시 /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1등 1명에게는 100불 상당의 물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상당의 물품

3등 3명에게는 각각 30불 상당의 물품

*** 그리고 찬송가를 모두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 상당의 물품이 주어집니다. ***

*상금 및 상품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 L.C.D

협찬

필그림 오케스트라,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향안목사회, 남가주 총호예지부, 벨렐장로교회, 엘에이사람의교회, Horizon신학대학교, 기독일보, 한솔종합보험, 크리스찬헤럴드, 라디오코리아, 마동환변호사그룹, 백보한의원, Allstar, Precision, 최진욱변호사, 재미남가주황해도도민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장애우사랑교회

☎ 연락처 : 213-705-0404 / Fax : 213-251-8930

주소 :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2012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 2012년 5월 21일 (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쁜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앞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cusa.com / ic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서 + 웨스트턴)

평일엔 경비원, 주일엔 목사 자바시장 섬기며 세계 복음화 꿈꾼다

노숙자 나눔 사역, 독거노인 사역도 함께 자비량 사역 하며 용감한 경비원으로 언론에 보도

세상이 각박한 탓에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린 듯 하다. 저마다 먹고 살기 바빠서일 것이다. 하지만 차가움이 상전이 되어 버린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한인 목사가 있다.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가 그 주인공이다.



김영규 목사

한국에서 평택대학교와 백석대학교(M.Div.)에서 수학하고 나눔사역을 위해 도미한 김 목사는, 7년 전부터 자바시교회를 창립해 선교활동을 해 왔다.

LA 한인 경제의 심장부이자 세계 최대의 의류시장 중 하나인 자바시장이 변화되면, 세계가 변화된다는 비전 아래 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이 그의 주된 사역이다. 그에 따르면, 상인 한 명이 바뀌면 한 나라를 책임질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자바시장은 선교의 잠재 인력들이 물려드는 곳이다.

추원했다.

목사이지만 그는 평일엔 샌퍼드로 홈세일마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평범한 아저씨다. 시무와 있는 방주교회 형편이 어려워 사려비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일엔 목사로, 평일엔 경비원으로 둔갑(?)해야 한다는 현실이 어찌면 서글프기도 할텐데, 김 목사는 전혀 그렇지 않은 눈치다. 오히려 자바시장이라는 선교지에 상주하면서 일할 수 있으니 더할 나위없이 좋다는 반응이다.

자바시교회를 통해 이렇게 세계 선교에 대한 야무진 꿈을 꾸는 그는, 2006년에 장로교 목사이지만 루터교단 소속 방주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돼 가기도 했다.

그의 이런 자비량 선교철학 때문일까. 방주교회를 섬기는 2명의 전도사를 비롯해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까지 모두 무보수로 사역하고 있다.

최근 30주년을 맞이한 방주교회는 50-60여명의 성도 대부분이 자바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이다. 이들과 함께 김 목사는 매주일 아침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예배를 드린다. 섬김과 나눔을 맡아 아닌, 실천으로 본을 보이니 성도들도 김 목사의 살아가는 방식에 자연 동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엔 자바시장에서 4만5천불이든 해외 쇼핑객의 가방을 훔치려다 도망친 강도를 붙잡아 '훌륭한 경비원'으로 한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칼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호루라기를 불면서 끝까지 추격해 결국 강도들이 포기했다고.

그리고 2년 전부터는 한달에 두 번씩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랑의점 심식사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도 타운 내 250여명의 노인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는 행사를 벌였다. 어버이날을 맞이해 특별히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방주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미은행 직원 8명이 봉사자로 나섰고, 자바시장 업체 '태'가 컵라면 300박스를, '오마이 즐리안'이 식사를

방주교회의 한 성도는 "세상에 이렇게 순수하고 좋으신 목사님은 처음 본다"며 칭이 마르도록 자랑을 한다.

나눔의 온정이 식어 가는 이 시대에 강물을 거슬러 힘차게 헤엄치는 연어처럼, 그는 오늘도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나눔을 실천해 간다.

정한나 기자

골든게이트신학교 한인교회 차세대 지도자 양성

M.Div., M.T.S. 학위에 한영이중언어 과정 신설

미남침례회(SBC) 소속 골든게이트침례신학교의 남가주 캠퍼스가 한영이중언어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과정을 개설해 차세대 한인교회 지도자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골든게이트신학교는 1944년 개교 이래 약 8천명이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복음적, 선교지향적인 학교로 손꼽힌다.



안상희 교수

골든게이트신학교 자체만의 장점을 꼽는다면 우선은 미국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의 직영 신학교이므로 사역의 기회와 폭이 상당히 넓다는 점이다. 교단으로부터의 재정 지원도 튼튼하기에 우수한 교수진이 폭넓게 포진하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교단의 지원 덕에 학비가 타 신학교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며 남침례회 멤버일 경우 학비가 절반 이상 감면된다. 그 외 다양한 교내, 교외 장학 혜택도 주어진다.

다기보다는 목회 후보생이나 평신도 지도자 양성 과정에 해당한다 볼 수 있기에 이민교회라는 특별한 세팅 안에서 목회하려는 1세, 1.5세들에게 권할 만하다. 그동안 이민교회 내에는 "한국 신학교나 미국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가 이민교회라는 독특한 컨텍스트에 적응하는 데에 과도한 에너지와 시간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남침례회 소속 학교이기에 한인교회와 신학적 정서가 잘 맞으며 한영이중과정이기엔 이민목회를 지향하는 1세대 1.5세를 이민교회 세팅에 적합하게 훈련시켜 줄 수도 있다.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본교를 두고 남가주 캠퍼스는 본교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학점 취득과 학사 관리가 남가주 캠퍼스에서 100% 가능하다. 이 중에도 남가주 캠퍼스에서 ATSS의 인가를 받아 개설하게 되는 한영이중언어 학위 과정은 차세대 한인 이민교회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 그동안 목회학박사(D.Min.) 과정을 한국어로 개설한 몇몇 학교가 있었지만 ATSS의 인가 아래 목회학석사와 신학석사 과정을 한국어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전무했다.

이 과정의 부디렉터 안상희 교수는 "골든게이트신학교가 남가주 지역의 이민교회, 특히 한인교회를 섬기겠다는 비전과 동기를 갖고 이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침례회라면 백인 위주의 보수적인 학풍이 대부분의 인식이지만 골든게이트신학교의 경우는 서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선교적이며 다문화적인 신학 성향도 수용하고 있다. 이민자들을 위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서 이 과정에 투입되는 정교수만 해도 5명이다.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2세 교

수 3명이고 한국 선교사 출신으로 한국어가 가능한 백인 교수도 있다. 안상희 교수는 1세로서 교수직을 맡는다. 수업은 영어 혹은 한국어로 이뤄지며 속제는 한국어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안 교수는 "모국어로 이뤄지는 강의는 한인들이 미국 신학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도우며 특히 한인교회라는 상황 속에서 이민목회에 접근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 되라

미주개혁신학대학교 2012년도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개최

미주개혁신학대학교(총장 박요한)가 지난 12일 오전 11시 찬양교회(김성대 목사)에서 2012년도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미주개혁신학대학 학위수여식이 찬양교회에서 거행됐다.

행사는 1부 졸업예배와 2부 학위수여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학부과정의 경우 신학과 2명, 선교학과 1명, 목회상담학과 2명, 기독교교육학과 1명이 졸업했고 대학원과정의 경우 신학과 7명, 문예창작과 1명, 유아교육학과 2명, 목회상담학과 3명, 사회복지학과 1명이 졸업했다. 이중 토론토론편교 출신의 졸업생도 9명에 달해 더욱 뜻깊었다.

예배에서 박요한 총장은 에스더 4장 14절을 본문으로 "이때를 위하여 아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총장은 "목회자라는 위치는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세우시는 것이기에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정한 사역자인가"라 물으며 "다윗과 같이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기를 잘 살펴야 한다. 여러분은 야구에서 적시에 안타를 칠 존재로 세운 귀한 사역자이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설교를 마쳤다.

예배에서 박요한 총장은 에스더 4장 14절을 본문으로 "이때를 위하여 아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총장은 "목회자라는 위치는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세우시는 것이기에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정한 사역자인가"라 물으며 "다윗과 같이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기를 잘 살펴야 한다. 여러분은 야구에서 적시에 안타를 칠 존재로 세운 귀한 사역자이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

라"고 설교를 마쳤다.

예배의 사회는 교수인 주현상 박사가 맡았고, 성경봉독은 미주크리스천문인협회 회장인 정지훈 박사가 맡았으며, 학위수여의 사회는 박흥수 박사가 맡았다. 학사보고를 토론토론편교 학장인 서은주 박사가 맡았고, 유아교사 자격증 수여를 유아교육학과장인 김문희 박사가 맡았으며, 이

날 특별히 사회봉사상 수여식은 LA커뮤니티컬리지위원회(LACCD) 이사인 티나 박 씨가 맡았다. 축사는 정해진 박사(남가주명성교회)와 김성대 목사(찬양교회), 미나세렛교단 총회장이 맡아 졸업자들을 권면하고 축하했다.

빅터 박 기자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고객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것을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의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할 길을 늘 고민합니다. 고객들의 참된 동반자로, 때로는 강직한 대변인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특별상담]

- 비자 거절
- 영주권 거절
- 추방재판

대표변호사 이문규
LEE & 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미국 투자법 및 투자이민 전문변호사
Univ. of Minnesota 법학 석사(1993년)
Univ. of Missouri 경영학 및 회계학 석사(1990년)
캘리포니아 재판변호사 정회원
영양식품 및 식품안전 전문가 변호사
미국이민 변호사협회 정회원
미주리주 공인회계사(CPA) 협회회원
Business Advisory Council(영미노인 상담)
미주 상공인 총 연합회 고문 변호사
국제 Law Firm Counsel, Shopping, 근무
국제거래/회사법/이민법/세법 및 상속, 간 재영

이민법 [Immigration]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 종교비자·종교이민·가족이민
-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 추방재판, 불법체류 구제
- 비자거절·항소

상법 / 소송 [Business / Litigation]

- 민사(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법
- 형사,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 상법(계약체결·위반)

파산법 [Bankruptcy]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 신용 문제 상담



이문규 법률그룹
LAW FIRM
대표전화 213-380-2828

<p>LA Office 3250 Wilshire Blvd, #1404 Los Angeles, CA 90010 213-380-2828</p>	<p>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p>	<p>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2-7 영동빌딩내 더블유 오피스 J7호 02-541-0556</p>
--	---	--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FOR GAPCK
CENTENNIAL OF GRACE, TO THE LIGHT! TO THE FUTURE!



1912~2012



총회설립100주년 기념 해외선교대회

- 기간 : 5.29 (화)~31(목)
- 장소 : LA 나성열린문교회

우리의 모 교단(대한 예수교 장로회)이 교단 설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기념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LA에서 '해외선교대회' 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뜻 깊은 행사에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함께 하셔서 장차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계기가 되시길 희망합니다.

총회설립100주년기념 해외선교대회 공동대회장 박헌성 목사

참가 대상

대한예수교장로회 관련 모든 분들
목회자 선교사 장로 평신도 (미주대표 120명)

등록 방법

이메일 : sshan32@gmail.com
전화 : 714.504.4257, 홈페이지 이용 등록

참가 등록

\$50 (20일 등록마감)
호텔, 식사, 버스, 기념품 제공

기타 사항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이용
cafe.daum.net/mission-100

총회설립100주년기념 해외선교대회 조직

고문 길자연 장영춘 윤중호 고응보 김득룡 김혜성 김상규 이희봉 정고영 윤성원 김윤배 김수학 김승곤 박영창 이성락 장익 지도위원 김성길 문성록 김경진 이용걸 김만홍 김남수 정인량 최인근 강영석 김용 황은영 정원기 박기호 이정현 이인승 니광삼 이영희 정창수 문석호 명화영 대회장 하귀호 박헌성 부대회장 박무용 박기태 김철직 조진모 이창우 김동욱 김재열 김광삼 광건섭 최승찬 권섭 박기태 손원배 홍지선 최동진 원종훈 나성균 정명섭 김경식 조문희 김풍운 윤상철 최기정 윤형복 임권택 신다니엘 서기 최인모 조재형 부서기 김형국 정우성 회계 김권중 지윤성 부회계 함중수 광부환 회록서기 문상무 윤태근 부회록서기 김찬곤 서오석 총무 옥성석 서종운 이준우 남성수 문상면 정수일 김성득 함상근 정재훈 이규섭 오요셉 최해근 권혁천 준비위원장 한성수 준비위원총무 이남종 기획위원장 이성우 진행위원장 양경선

2012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 Fax: 562-926-1025 / www.pts.edu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 Fax: 310-793-2297 / www.cohenuniversity.ac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 Fax: 213-381-0010 / www.iruniv.org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 Fax: 818-435-2441 /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Solomon University, SU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학위: 신학 학사/석사/박사 (BA, D.Min, Th.D), 교회음악, 문예창작
 장학금 혜택 총장: 백지영 목사 부총장: Dr. Brent Price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 Fax: 213-487-737 / www.solomonuniv.org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 hjung3155@gmail.com

국제비전대학교
 정시/수시: (Offline, Online 강의)
 학위: 학사/석사/박사 (D. Min., D.Miss., Ph. D.)
 I-20 발행, 각종 장학금 지급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93-5745 / 213-610-4989 / www.vision.edu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화 목사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 Fax: 310-609-141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A., CA. 90019
 Tel: 323-731-98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4055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9-8987

미주개혁신학대학교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2706 Wilshire Blvd. 1st Floor, Los Angeles, CA 90057
 Tel: 213-736-6500 / Fax: 213-736-6504 / reformeduniv.org

아메리칸 신학대학 및 대학원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2-7356 / Fax: 818-773-8868 / 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하나님 앞에 섰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Tel: 562-869-7497 / www.mcniversity.org

바울성경대학
 말씀을 개혁주의 신학안에서 바르고 깊이있게,
 성경 66권 전체를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언제나, 오실 수 있습니다.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Tel: 562-394-3342 / paulbiblecollege@gmail.com

윌클리프대학교
 Wyclif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는
 개혁적인 신앙과 바른 성서해석을 가르쳐
 여두움을 밝히는 지도자, 개혁의 새벽별
 존 윌클리프 같은 개혁자를 길러낼 것입니다

14631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4
 Tel: 562-777-7078 / www.wyclifuniversity.net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 www.aeui.org

Solution for Tomorrow



**무료 음향 영상
조명 컨설팅 및
System Check-up**
문의 323.730.5050

Blackmagic Cinema Camera
 Featuring a wide 13 stops dynamic range,
 2.5K resolution, EF & ZE lens compatibility,
 SSD recorder, RAW, ProRes and DNxHDI

\$2,995 Body +Lens(Optional)

ATEM Television Studio
\$995

SONY NEX-VG20H
\$2,199

Blackmagicdesign | **vimeo** | **Ustream**

저렴한 비용에 고화질 HD급 예매 중계 시스템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ATEM Television Studio 하나로 고화질 영상 녹화뿐만 아니라
 실시간 인터넷 중계까지 All in one System 을 구축해 드립니다.



Laservision World / Laservision Structure & Engineering Inc. / wwori.com / AVLgear.com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730-5050 Fax: 323-383-0257 contact@laservisionworld.com



성령이 일하시면 불가능도 뛰어넘는 기적 일어나



장재효 목사가 남가주리디미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

“처음에는 거지와 다름없던 사람들, 바다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부자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의 보증이 되는 성령을 받고 그 증인이 되니 그들의 삶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 11일 금요일 저녁 장재효 목사가 남가주리디미교회(김요섭 목사)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장 목사는 “제가 섬기는 성은교회는 하나의 대가족이다”라며 “교인들이 목사와의 만남을 평생 두고 감사해 하고 있다. 실패하고 빛지고 죽을 지경의 사람들이 옥수동에 모여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며 어려웠던 시절 웃이 없어 밖에 나가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치마 저고리, 블라우스 등을 구입해 주었던 이야기를 간증했다. 이어 장 목사는 “그 시절 한 성도가 자궁 외 임신을 해서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이 다 위험한 상황 가운데, 불신자인 남편 신 모 씨가 방법이 없이 교회에 와 기도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랬더니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더니 태아

가 핏덩이로 쏟아져 나오며 산모가 생명을 건졌다. 의사가 치료 불가능하다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살릴 수 있다”고 증거하며 “결국 그 가정이 다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의 증인이 됐다. 성령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하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들이 전도하니 교인이 늘어나 부흥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인들과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말할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믿음을 성숙케 하신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기에 힘쓰자”고 덧붙였다.

지난 5월 4일 LA평화교회(김은목 목사)를 시작으로 남가주 지역 집회를 시작한 장 목사는 엠마오 장로교회(김민섭 목사), 왕성교회(안경찬 목사), UCS신학교(아브라함 최 총장), 웨이스신학교(양병삼 학장), 남가주광명교회(정우성 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웨스트레이크한인교회(오정택 목사)에서 5월 27일까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토마스 멩 기자

대한민국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신한국인 대상에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올바른 복음전파 · 교회개혁 본보기

최근 들어 일부 교회의 대형화와 헌금 전용(轉用)에 따른 잡음, 분열과 갈등 등을 성도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본연의 역할이 아닌 외형의 성장에 몰두하는 실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올바른 복음전파 등에 헌신하는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송고한 쓰임마져 훼손하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성은교회 장재효 담임목사의 교회 개혁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 목사는 지구촌을 17차례나 순회하며 120여개국 100여개의 교회를 개혁한 교계의 철인으로 여든을 바라보는 고령에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에 충실해 한국교회와 후배 목회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기 때문이다.

항상 후배 목회자들에게 “말 재간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전하는 설교”를 강조하는 그는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총장, 바른목회연구원장, 전국기

에 앞장 서 왔다.

특히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길 소원함”을 기도하는 장 목사가 43년 전 서울 옥수동 단칸방에서 개척한 성은교회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교회로 성장했다.

수많은 웨방과 시기, 핍박을 겪으면서도 영적인 결속을 더욱 다져 구미, 신평(당진), 대전, 남양(화성), 부천 등 전국 곳곳에 지교회를 세우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중국, 인도 등지에 나아가 세계 선교를 펼치는 그와 성은교회는 ‘복음 증거자’의 본보기라 하겠다.

그럼에도 장 목사는 “목회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할 때 안되는 일이 없다”고 간증한다. 목회자들 개인적인 목회의 계획이나 인위적인 수단, 방법 등에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그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구원의 복음인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대언하며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스



장재효 목사의 신한국인 대상 수상을 기념하며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 가운데 감사예배가 거행됐다.

스로의 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힘주어 말했다.

이런 장 목사의 교회개혁, 부흥성장, 세계선교 등 목회 일대기를 한국 CBS가 3부작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큰 감동을 주기도 했다.

또한 그의 설교는 CBS, CTS 등을 통해 매주 방영되며, 해외에서도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온라인 동영상 설교 등으로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다. 유튜브에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그의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하다.

스스로 은퇴를 결심하고 2004년 이후 공동의회 때마다

교회에 사직 선언을 했으나, 성도들이 간청하며 막아서 그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누비며 지금도 복음전파에 온 정성을 쏟는 중이다.

또 그는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를 섬기길 소원한다”며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등불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 기독교의 부흥과 세계 선교 활성화에 헌신하고 올바른 복음 전파와 교회 개혁의 방향성 제시에 기여하고 있는 성은교회 장재효 담임목사는 ‘2012년 올해의 신한국인 대賞’(사사투데에 주최·주관)을 수상했다.



교회 개혁과 세계 선교에 있어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장재효 목사가 신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갈릴리신학대학 & 랭귀지스쿨

GALILEE SCHOOL OF THEOLOGY & LANGUAGE SCHOOL

목회학석사 (M.Div.) 신학석사 (S.T.M.)
목회학박사 (D.Min.) 신학박사 (S.T.D.)

SEVIS인가 대학, 자체 I-20발행
ESL 프로그램 (음성학적 영어학습방법론을 개발)

Tel. 213-746-1004 / FAX. 213-746-5004
1000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RETREAT CENTER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에서!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에 관하여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와 미국 국제 선교 센터 (U.S. Center for World Missions)는 1976년 랭프와 로버타 윈터에 의해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전도 종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파사데나에 위치한 35 에이커의 시설은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교제 할 수 있는 공간, 각 그룹마다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시작할 수 있는 선교 전략과 훈련을 위한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초청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는 가진 자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첫째 목표가 이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은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캠퍼스에서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기를 초청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약 및 문의: 고세희

1539 E. Howard Stree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conferences/Korean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EM)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 (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현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회 새벽 6:20

갈릴리션교회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라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com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미찬양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침례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항하는 교회. 천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찬양(부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일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후 1:00 오전 7:00 (토)

글렌데일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균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진원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학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EM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김성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사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손병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박용덕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8:00 **박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화-금)
EM예배 오전 10:00 오전 6:30 (토)
유치, 유아부, 중·고등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쉽교회
온전한 심자기의 능력으로 함께 나아가는 교회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1부예배 오전 8:00 한아침년부예배 오후 1:00 **최성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EM/Youth예배 오후 12:00 오전 6:00 (토)
AWANA 오후 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매월 마지막주)

늘푸른선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 92806
T. (714) 632-9191, 9192 / missionway.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EM) 오전 9:45 중·고교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치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기도회 오후 8:00
중·고등부예배 오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청년토요예배 오후 6:00

둘로스교회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주님과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이성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사바드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손인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은 믿으실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성회예배 오후 12:00

벤틀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학교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한국어 학교 오전 9:30 (토)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15617 Burwood Rd., Victorville, CA 92394
T. (760) 220-3263, (760) 542-9366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현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1부예배 오전 8:0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기 나무의 가치를 보나이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 F. (310) 793-2298

1부예배 오전 7:30 5부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12:15
3부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2:15 새벽예배 오전 5:45 (화-금) / 6:00 (토)

세리투스장로교회
세리투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901
T. (562) 860-5451 / iloveccp.org

김수철 담임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
(다문타운 4기 Crocker St.)
1부기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7
T. (213) 385-4515 / F. (213) 385-547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박상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시온성중양교회
은혜, 사랑, 선교로 복음의 빛을 비추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EM예배 오전 10:00

씨네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할만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지 사론 담임목사**
오후 7:30 오후 7:30
(매일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열매로 온전한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랑, 생명의, 사랑을 감동하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기도하는 선교교회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후 1: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1부예배 오전 8:00 **김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김세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2:3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경말씀이신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다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7:30 (토)

임마누엘선교회
성령을 따라 (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A,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0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호응, 소·친·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성현경 담임목사**
스페인예배 오전 10:00 오후 6:0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필로우십) 수요일예배 오후 7:45
오후 12:00 (분당)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1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바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50 새벽기도회 오전 5:25(화-금)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LA사랑의교회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386-2233 / F. (213) 386-2243

'감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치유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SAM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오바마 논란으로 돌아본 '美 동성애 현주소'

대형교회로 교인 몰리는 이유

연세대 총동문회, 제1회 목회자 세미나 개최

정치의 뜨거운 감자

9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공식 지지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상대편 대선 후보 미트 롬니(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반대 입장을 펴고 있어, 동성결혼 문제는 올 대선 레이스에서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간 동성애자들의 시민·사회적인 권리는 옹호하면서도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자신의 생각이 "진화하고 있다"(evolving)는 유보적 견해를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그의 애매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일어난 데다, 동성결혼 지지자들과의 모임은 대거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입장 표명을 하게 됐다.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대선자금 모금에는 확실한 보증수표가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의 향후 일정에 주목하면서 그가 10일 1200만불의 대선자금 모금을 약속한 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를 방문하기 위해 떠나며, 할리우드 배우 대부분이 동성결혼 지지자들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대선자금 확보에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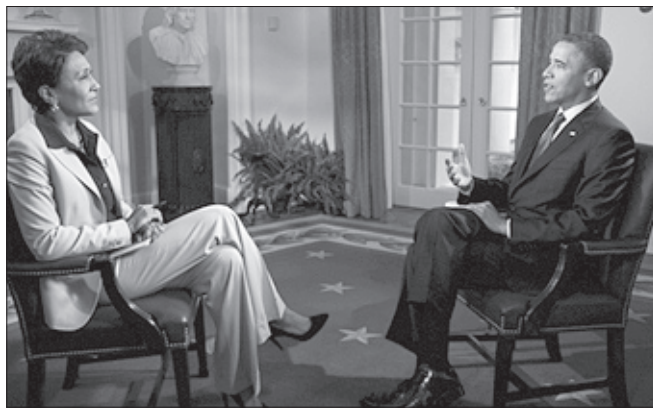
그 다음 주에는 뉴욕시 바나드 칼리지에서 입학식 연설이 잡혀 있다. 동성결혼 옹호 단체 '프리덤 투 매리'의 창설 총재인 에반 울프만과 함께 메달을 전달받을 예정이다.

또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대선자금 모금 캠페인에서 연설할 예정이며, 6월 6일에는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가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이 모여 모금 행사를 펼치는 갈라 자선 행사의 연설을 한다.

동성 커플들의 이야기가 유명 TV쇼 등에서 다뤄지며 젊은층 사이 동성결혼 지지자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치적 이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원래 오바마 지지층이 적었던 화이트칼라 층 뿐 아니라, 흑인 목회자가 이끄는 교회들이 투표 결과를 좌우하는 버지니아주나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대부분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있어, 오바마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한편, 미트 롬니의 경우 지난달 동성애자 남성을 캠페인 고문단에 임명, 논란이 일었으나 최근 동



9일 ABC 굿모닝아메리카에서 동성결혼 옹호 발언을 한 오바마 대통령. 왼쪽은 앵커 로빈 로버츠. ©백악관

동성애 확산에 반대 움직임 거세 교회 및 교단 내에서도 갈등 심화

성결혼 반대 의사를 확실히 표명했다. 그러면서 보수주의 표심을 안고 있던 릭 샌토럼 의원에게 공식 지지를 받기도 했다.

교회의 뜨거운 감자

얼마 전 조지아주 대형교회 노스포인트커뮤니티교회의 앤디 스탠리 목사의 설교가 미국 목회자들 사이에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자신의 교회 교인 중에 한 남성이 다른 교인 남성과 관계를 맺고 아내와 이혼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 두 남성이 교회 안내자로 섬기고 싶다고 밝힌 사실을 설교에 인용한 것이다.

스탠리 목사는 그 중 한 남성은 아직 사실혼 관계라는 데 집중하고, 이는 간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은혜가 진리를 만날 때"라는 설교를 통해 그는 "진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지만, 은혜는 나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관계가 틀어진 두 가족이 용서와 사랑으로 함께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스탠리 목사의 설교가 사랑에만 초점이 맞춰져 "동성애는 허용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알버트 몰러 총장(서던캘리포니아대) 등 보수 교계 리더들이 앞장서서 그에게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스탠리 목사는 아직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짧은 글이나 인터뷰보다, 시리트로 연결되는 8개의 설교를 들으면 자세한 내 입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만 밝혔다.

논란이 되고 난 다음 주 설교에

서도 스탠리 목사는 '게이' 혹은 '동성애자'라는 단어의 언급은 피했으며 "종종 기독교인들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딱지를 붙이면서 나는 천국에 가고 그들은 모두 지옥에 떨어질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다"며 쉽게 정죄하는 것을 사양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이 메시지만으로 미국의 뛰어난 설교가로 알려진 스탠리 목사가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단정짓기는 성급하다고 교계 지도자들은 말한다.

일부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대형교회가 자유주의와 타협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 논란의 중심에서

동성애가 교계의 '뜨거운 감자'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해선 교회의 전체적 방향을 결정하는 교단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동성애 성직자 안수를 허용한 교단은 총 4개로 연합그리스도교회, 성공회, 미국루터교, 미국장로교가 있으며,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히 한 미국침례교회, 전미복음주의협회, 남침례회, 연합감리교 등에서도 총회 때마다 매년 동성애 허용 유무에 대한 이슈가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

얼마 전 플로리다 주에서 2주간 열린 미국연합감리교 총회에서도 동성애와 관련된 정관 수정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70여개나 접수되는 등 뜨거운 접전이 벌어졌으나, 결국 보수층의 지지로 정관 개정은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총회가 폐회되기 전 동성애 지지자들이 '비효율적 총회가 됐다'

며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여파가 남았다.

한인교회가 다수 가입하고 있는 미국장로교의 경우, 2011년 5월, 안수기준 변경에 관한 수정안(10-A)이 전국 173개 노회 과반 찬성으로 통과됨에 따라 동성애자들도 집사, 장로, 목사로 안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후 지난해 10월 첫 동성애자 목회자가 안수를 받는 일도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장로교단 내 7개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자들이 지난해 8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공식 대화를 갖고 미국 장로교단 안에 새로운 복음주의 교단을 만드는 일을 논의하기도 했으며, 올해 초 두번째 공식 모임을 가진 보수측은 혁신 조직인 The Evangelical Covenant Order of Presbyterians(이하 ECO)를 시작했다. ECO는 독립적인 교파로 교회와 지도자들을 지원해 부흥과 성장을 도모하고, "앞으로 PCUSA 내에 남아있는 회중과 떠나기로 결정한 회중 모두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데 헌신할 것"이라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대부분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PCUSA 한인교회들도 한미노회를 통해 구체적인 동성애 반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정체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교단 이전 혹은 탈퇴 의사를 표명하는 미국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한인교회도 교단 이전을 표명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올 여름 개최될 PCUSA 총회 총회장 후보로, 동성애에 찬성할 뿐 아니라 LGBT(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를 지지하는 그룹에 속한 목회자가 출사표를 던지는 등, 교단 내 동성애 옹호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권나라 기자



정석환 박사

한국교회가 놓인 시대적 컨텍스트(정황)라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또 씬을 원하는 이들의 마음에는 저마다 상처가 있다. 특히 한국인들은 특유의 비교의식과 피해강박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깊다"며 "이렇게 아프고 상처입은 영혼들은 그들만이 아닌 다른 이들의 마음에도 상처를 입힌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이 잦은 것은 바로 그들이 입은 상처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치유 목회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영혼들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내지 않고선 더이상 한국교회 부흥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그러자면 먼저 목회자들부터 치유를 받아야 한다. 많은 교회들의 문제는 목회자들 역시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있으면서 그들이 교인들을 치유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목회자들이 상처입은 치유자가 되어 교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면 한국교회는 제도약의 발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또 다른 발제자인 피종진 목사는 '교회 성장을 위한 목회자의 영성 관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영성훈련에서 조심할 것은 훈련을 율법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훈련 자체를 다른 것보다 우위에 두려는 편견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강영선·장항희 목사가 성령과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회 성장의 길을 모색했다. 김진영 기자

교회 바자회 마켓 반찬 취급 하시는 분 하숙 하시는 분 (도매가에 드립니다)

취급 품목 *플라스틱 그릇 무료 제공합니다.

오징어젓	고추젓	연근조림	명란젓	마늘쫄무침
어리굴젓	양념게장	우렁된장	창란젓	고추잎무침
가리비젓	양념깻잎	냉이된장	낙지젓	장어구이포
황새기젓	간장깻잎	간장고추	조개젓	파래무침
더덕무침	된장깻잎	된장고추	갈치젓	무말랭이

3109 W.Olympic Blvd #D Los Angeles, CA 90006 **서광식품(213) 268-7004**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탈전문!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성령충만함으로 영적 이기주의의 극복하자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보는 영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무관심 하거나 아니면 서로 물고 뜯으며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듯 해서 안타깝습니다.

이제 정말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마지막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와 같은 음행으로 불과 유향의 심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의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 롯의 구원이 일어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세계 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1,500만 달러 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손 위에 작은 도시락 하나를 올려놓는 안드레와 같은 순종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이 땅을 살리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하던 별 볼 일 없던 제자들,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공포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고 바로 그렇게 하나가 된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의 새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되게 하는 성령충만함이란, 어떤 환경에서도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순종함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사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교회

새벽기도 때마다 늘 습관적으로 꺼내 무릎 밑에 끼는 방식이 오늘 따라 유난히 달라 보인다. 또 누군가 새로운 방식을 가져다 놓은 듯 싶다. 갑자기 그 방식을 향한 고마움이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롭게 샘솟아 오른다. 벌써 오래 전의 일인데 내가 교회 사역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막중한 책임감과 나의 부족함의 그 깊은 괴리를 메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긍휼 뿐이라는 깨달음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대상 뒤 십자가 밑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얻었다. 기도는 즐겁고 기뻐지만 기도의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어쩔 수 없이 무릎이 조금씩 저려와 자세를 바꾸곤 했다.

어떤 분들의 눈에 그 모습이 조금은 애처로워 보였다.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극진한 정성을 들여 고급스럽게 수를 놓은 방식을 들고 오셨다. 푸근한 것이 여간 좋은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방식을 몇 년을 사용했다. 그러다가 또 몇 년이 지나자 그 방식이 조금은 낡고 퇴색된 느낌이었는지 어느 날 가보니 새로운 방식이 놓여 있다. 또 누군가의 정성이 가득 담긴 방식이었다. 같은 권사님이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의 솜씨인지 알 길이 없었지만 어쨌든 똑같은 은혜를 느끼면서 나는 그 방식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푸근한 사랑과 격려가 방식으로부터 느껴졌다. 그렇게 몇 년 주기로 방식은 바뀌고 또 바

방 석

꾸고 있다. 그 정성이 고맙기 이를 데 없다.

목회자들에게는 늘 이런 저런 어려움과 고충이 있기 마련이다. 때로 그것이 좀 심해서 상처가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늘 하는 말이지만 나는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고충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목회의 보람과 사명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다면 첫째는 갈수록 깊어가는 주님의 사랑이요, 그 다음은 이렇게 말없는 곳에서 은근한 사랑과 격려를 보내는 무언의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대체로 말이 없다. 있는 듯 없는 듯 때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다. 그러나 아파오는 무릎을 괴어주는 이 푸근한 방식처럼 그들의 존재는 공기처럼 바람처럼 늘 주위에서 훈훈하게 느껴진다. 그 따뜻함과 사랑이 목회자로서 겪는 여러가지 시련과 어려움으로 좌절안식 몸돌 바를 모르는 순간에도 나를 지켜 주고 위로해 준다. 마치 아말렉

과의 싸움에서 기도하던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 좌우에서 그 손을 붙들어 주던 아론과 훌처럼 이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목회자에게 그런 격려와 용기를 주는 귀한 동역자들이다.

어느 전도사님의 이야기로는 실제로 한국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목회자들 중에는 무릎이 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아마 맨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래 앉아있는 까닭일 것이다. 그러나 고맙게도 나에게 는 아직 그런 문제가 없다.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 방석을 가져다 놓는 은밀한 손길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디 그 뿐이랴 부족한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목회자의 부족을 감싸주고 목회자의 연약함을 보완해 주는 온성도들의 또 다른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난 얼마나 행복한 목회자인지 모르겠다. 그 따뜻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난 또 오늘도 기도의 방식 위에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이름 모를 그 방식의 주인공들을 축복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김영길 목사
감사한교회

요즘 금요일 저녁예배에 순서를 따라 성경책 4-5장씩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열왕기하 5-8장을 읽었습니다.

5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렸던 아람의 군대장관 나야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근 후에 기적적으로 치료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야만 장군은 가지고 온 엄청난 선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일인지하에 거절합니다. 그 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스스로 맹세하기를 "내가 그에게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은 두 달란트(노동자가 40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와 의복 두 벌(속옷과 겹옷을 포함하여 최고급이었겠지요)을 받아다가 감추어둡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이 일로 인하여 엘리사의 저주를 받고 문둥병자가 됩니다.

6장에는 이름 없는 한 청년이 엘리사의 종으로 나옵니다. 그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군대를 보며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하고 겁에 질려 탄식합니다. 그는 문둥병자가 된 게하시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섬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게하시였다면, 이전에 엘리사를 통하여 여

러가지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7장을 지나면 다시 게하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는 왕이 12년을 다스렸는데 그 중에 7년 동안 흉년으로 고통당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7년이 지나고, 아람군대도 물러간 후에 게하시가 여호람 왕과 더불어 한가하게 엘리사의 지나온 행적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으로 8장이 시작됩니다. 그 때 엘리사의 말을 듣고 7년 동안 흉년을 피하여 불레셋에 내려가 있던 수넵여인(그녀는 엘리사를 지극하게 섬겼습니다)이 자기네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 왕을 찾아옵니다. 마침 수넵 여인 이야기를 하고 있던 때였으므로 게하시는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입니다"하고 증언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게하시는 이미 문둥병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다시 등장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8장의 이야기를 5장 이전에 옮겨놓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합니다. 그런데 7년 흉년 이야기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8장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문제는 우리들의 경직된 생각, 즉 게하시가 탐욕의 횡재자로 문둥병자가 되었으니 반드시 역사의 페이지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든지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재등장하는 게하시를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곁에서 쳐다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이인규 편집국장: 토마스맹

지사망: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드, 시애틀

대표전화: (213) 739-0403

팩스: (718) 228-9506 / E-mail: chdailya@gmail.com

주소: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 경산 한의과 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몰 2층) LA, CA 90006

〈한석호 목사의 성경상식 바로 알기〉

〈제 15회〉 유동근 목사의 마태복음 강해

과부의 두 렷돈



유동근 목사
한국 은누리선교회

4장 21-22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가지로 배에서 그물 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여기의 ‘더 가시다가’라는 이 말도 참 중요한 말이다. 주님이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셨다. 그리고 더 가시다가

저희들까지 부르신 것이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만 부르시고 더 가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까지 오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귀한 직분을 한 집에 돌 씌어나 주시는지. 그러나 그분은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으신다.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도 형제인데 주님은 그 둘을 함께 불러서 크게 사용하셨다. 어쨌든 원하기만 하면 한 집안에서 둘 아니라 셋도 사용하신다.

여기서 주님이 부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음성은 너무나 귀하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가는 건 소용이 없다. 공허한 것이라 한다. 주님은 다만 ‘나를 따라오라!’ 하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물과 배와 부친을 버

려두고 주 예수님을 좇았다. 여기에서 주님은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 대신에 네 아버지를 버리거라” 하지 않으셨다. 다만 따라오라고 하니까 이들은 응당 버리고 따를 줄을 알았다. 주섬주섬 물건을 챙겨 가지고서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따른 것이다.

그 뒤에 베드로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요한의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다 버려두었다. 주 예수님을 따르려면 버리지 않으면 못 따른다. 후에 주님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막 14:33).” 다 버려야 제자가 된다.

요한과 야고보, 특히 요한은 그물을 낚다가 부르심을 받았지 않았는가? 결국 요한복음, 요한일, 이삼서, 요한계시록, 이 모두는 각각 그 분야에서 보충하고 마무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요한복음은 네 복음서의 마지막에서, 요한서신은 모든 서신서의 마지막에서, 요한계시

록은 모든 성경의 마지막에서 보충하고 보완하고 마무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요한은 찬찬한 사람이다. 그물을 낚는 것은 찬찬하지 않으면 못한다. 야마 베드로는 그렇게 차분한 편이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성급한 편이다. 그러나 요한은 섬세하다. 또 아주 온유한 것 같다. 예수님의 품에 기댄 그 사람이 요한이다. 그리고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셨을 때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붉은 피만 보이지 물은 안 보인다.

그는 매우 섬세한 사람임에 분명하다. 한 병사가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 요한이 있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라, 네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은 손이 못박히셔서 손가락으로 모친을 가리키실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 다음 호에 계속



한석호 목사
남가주임마누엘교회

“오늘 우리가 드린 헌금이 과부의 두 렷돈과 같은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기도를 할 때 언젠가 들었던 내용일 것이다. 눅 21장에 있는 과부의 두 렷돈은 과연 헌금의 태도를 가르쳐 주기 위한 예수님의 교훈일까?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과 관계없음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위해 예루살렘에 임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꼬투리를 잡

으려고 별의별 질문과 방도를 찾았다. 권위, 불의한 농부, 남세, 부활 등 여러가지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과 죄를 비유로 지적하며 악함을 경고했다.

그 경고와 책망 가운데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눅 20:46-21:4을 연결해서 보면 해석이 자연스럽게 된다. 그 중 20:46-47은 결정적 해석의 틀이 된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샘플을 보여 주신 것이 과부의 두 렷돈 이야기다. 예수님은 종교의 명목으로 과부의 가산을 갈취하는 종교지도자들의 악함을 고발하고 계신 것이다. 과부들이 생활비 전부를 다 날도록 할 정도로 약탈하게 갈취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수험생의 척추 건강



윤제필 원장
자생한방병원 미국분원 대표

요즘 길거리의 청소년을 보면 다들 키가 시원시원하게 크고, 일찍 성숙해서 그런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구분하기 어렵다. 예전에 비하면 식이와 유전적인 요인이 개선되어서 체격이 월등히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체력은 어떨까?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만 자란 아이들에게 흉장난은 금물이다. 흉박을 걸어본 기억도 까마득할 것이며, 깨끗하게 닦인 아스팔트, 시멘

트 길만 걸어 다닌다. 학교에 들어가서는 책상에 앉아 하루종일 책과 씨름하느라 건강을 위한 운동 시간은 항상 부족하기 마련이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자연을 호흡하고, 운동으로 뒹어진 건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실제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척추 때문에 병원에 오는 청소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 특히 수험생 시기의 척추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

수험생 시기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가장 크다. 특히 딱딱한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생활습관과 컴퓨터의 과도한 사용은 청소년기에 각종 척추질환을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중요한 수험생 시기에 척추 이상이 생기면, 학습의 집중도도 떨어지고 평생 척추건강에도 빨간 불이 켜진다.

자생한방병원이 경인 지역 중고등학교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71.9%의 학생이 척추 관련 통증으로 학습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한다.

예전과는 달리 척추 질환이 청소년들, 특히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하는 질환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무래도 수험생들은 장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할 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운동량의 부족을 초래하여 척추 주변의 근력이 약해질 수 있고, 특히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해 척추의 측만이나 일자목을 유발하여 척추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장시간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은 척추에 부담을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가만히 서 있을 때 척추에 가해지는 무게가 100이러면 구부정한 자세로 있을 때는 척추의 부담은 80% 정도 증가하는 데 기인한다.

등을 구부정하게 앉거나 턱을 괴고 앉는 습관 역시 척추 및 주변 근육에도 스트레스를 줘, 척추질환을 유발하기 쉽다. 처음에는 어깨, 등이 자주 뻣근하거나 목이 뒤

로 잘 젖혀지지 않는 단순 통증에 불과하지만, 목 뼈의 형태 변화를 계속 간과하다 보면 디스크가 탈출하거나 목 뼈가 퇴행되기 쉽다. 여기에 스트레스나 피로 등이 겹치게 되면 턱관절의 염증으로 구개장애와 통증은 물론이거니와 두통, 피로감, 어깨 결림 등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험생의 척추 이상은 학습능력 역시 저하시킬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두개골과 직접 맞닿아 있는 목뼈에 이상이 생기면 머리로 올라가는 신경과 혈관이 압박을 받고, 주변 근육이 굳어진다. 이로 인해 두통, 어지러움이 생기며, 목이 뻣근하거나 어깨통증이 발생하고 피로가 쉽게 온다. 또한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머리의 열기를 식힐 수 없다. 뇌를 많이 사용하면 발생하는 열을 뇌 척수액이 순환하면서 식혀 주는데 척추에 이상이 생기면 뇌척수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뇌활동에 제약을 받아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되며, 뇌로 가는 산소 부족을 유

발하기도 한다. 등뼈의 일부분이 틀어지게 되면, 등뼈에 연결된 갈비뼈의 움직임이 둔화해 정상적인 호흡이 이상이 생기고 혈중 산소량이 감소해 뇌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한방에서는 척추건강을 관리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치료를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 추나수기,추나약물요법, 한약요법이 대표적이다. 추나수기요법은 수기(手技)로 비뚤어진 척추의 형태를 정상 위치로 되돌려 특정 부분에 물리는 하중과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어 뇌의 신경전달과 혈액공급이 촉진돼 통증이 없어질 뿐 아니라 집중력과 기억력이 높아지게 도움을 준다.

추나약물요법은 각종척추관절의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척추와 주변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해 주기 때문에 특히 좋지 않은 생활 습관, 자세로 약해진 척추 구조를 가진 수험생들에게 전반적인 체질 개선 효과도 볼 수가 있다.

수험생의 건강상태를 파악한 후 개인의 증상에 맞는 한약 처방을 통해 치료의 효율을 높이고 체력 보강과 두뇌활동 촉진을 돕는 한약요법도 있다. 특히 한약 중에 대표적인 수험생의 보약인 육공단의 경우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뇌에 산소공급을 원활하게 해 주는 동시에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효능의 단백질인 Egr1을 생성해 뇌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때문에 기억력과 집중력이 높아지고 만성피로가 제거된다. 육공단의 이러한 과학적 효과는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 의과대학연구소 신경학 박사인 서면 교수의 실험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이 연구논문이 SCI급 학술지인 국제 신경과학회지 뉴로 사이언스(International Journal of Neuroscience)에 발표되기도 하였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한번쯤은 자녀의 척추를 살펴보자. 힘의 근원인 척추가 바로 서고, 움추린 가슴이 펴 펴게 되면, 자녀의 얼굴도 한결 밝아질 것이다.

GOLDEN STATE UNIVERSITY

School of Oriental Medicine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진인 치유 사색은 기도와 말씀, 의술, 건강교육을 통하며!"

신입생 모집

가주 한의사 면허 취득반

주정부, 한의보드 정식 인가 학교

- 파격적인 장학금 제도 (유자격자 50%까지)
- 최고의 교수진, 최고의 교육환경 (대학 2년 수료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자)

편입생 모집

평생 사회 교육원 운영

누구나 한의를 쉽게 배울수 있는 기회!

한의학 과목 수강시 Credit 인정! (유자격자)

(한의학 기초반, 진단학 교실, 침구반, 본초교실, 지압, 가공)

중. 장기 선교사 훈련반

양·한방 진단, 영양치료, 경락치료, 운동물리 치료

단기 의료 선교 팀 보조사 훈련

각 교회 의료 선교 사역팀 훈련 의뢰 받습니다.

특혜 1. 일대일 임상지도 2. 취업, 선교지원 3. 자녀관리

9047.E. Florence Ave. #L. Downey, CA 90240
website : http://goldenstateuniv.us

입학문의 : (562) 622-3368 / gsu_inc77@yahoo.com

대학 병원 진료 쿠폰

무료진료 상담, 치료비 50%, 유능한 임상 전문의

진/료/과/목	부인과 : 생리불순, 경년기 증세, 비만 남성과 : 전립선, 스트레스성 분노, 비만 노인과 : 치매 예방보약, 골다공증 예방보약, 몸 시림보약 청소년과 : 여드름, 비만, 위염 유소아과 : 발육 성장 촉진, 감기 예방, 비만예방
---------	---

예약 전화 : 562-965-5112

총장 : 김성일 한의학 박사, 여목사

후원 : Holy 의료 교육 선교회, Holy 한방 병원

베리칩은 계시록의 666인가

〈특별기고〉 창조신학연구소 조덕영 박사

666이란 무엇인가

집승의 수이면서 사람의 수인 666은 요한계시록 13장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단어이다. 즉 성경 안에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본문이 없다. 솔로몬의 세입금 중수 666(대하9:13; 왕상10:14)이라는 구절이 있으나 이것은 666 금 달란트라 인간의 수 666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성경에 단 한번 등장하는 독특한 단어를 하팍스레고메나(Hapaxlegomena)라고 한다. 하팍스레고메나는 비교 가능 구절이 없는 관계로 해석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런 단어의 경우 단어 자체의 본 의미를 따져보고 이 구절과 관련된 앞뒤 문장의 전후 관계를 잘 분석하여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666도 단순히 666만을 따로 떼어 해석하면 위험한 계시록 13장 전체의 맥락과 틀 안에서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바다에서 나온 첫번째 짐승(1-10절)

첫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으며 그 짐승의 얼굴 모습은 뿔이 열이고 머리는 일곱을 가진 짐승이었다. 이들 짐승의 뿔 뿔에는 10개의 면류관이 있었으며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다. 짐승의 전반적 생김새는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을 닮았으며 입은 사자의 입을 닮았다고 했다(1-2절).

이 첫번째 짐승은 다음과 같은 10가지 권세가 있었다(3-8절). (1)짐승은 용으로부터 용의 능력과 왕좌와 큰 권세를 받았다. (2)짐승은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는 듯하다가 살아났다. (3)은 세상 사람들이 놀라 그 짐승을 따랐으며 사람들은 그에게 권세를 준 용을 경배했다. (4)은 세상 사람들은 용뿐만 아니라 짐승도 경배하기 시작한다. (5)은 세상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할 뿐 아니라 찬양했다. (6)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짐승과 같은 이가 없고 짐승과 맞서 싸울 존재도 없었다. (7)짐승은 교만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말을 함부로 하였다. (8)짐승은 42달 활동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9)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허락되었고 온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10)세상이 창조된 이후 죽임을 당한 신인 양의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성경(계 13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관계로 첫번째 짐승의 권세가 만만치 않음을 독자들은 금세 알 수 있다. 짐승에 대한 이같은 우주적 권세와 병행하는 어린 양에 대한 우주적 권세와 병행을 이룬다는 점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계 2:28; 3:21). 그리스도에 맞서는 이같은

악령의 대응을 기독교적 패러디(Christological parody)라고 부른다.

짐승의 때에 대해 하나님은 몇가지 경고를 하신다(9-10절). 첫째 짐승의 때에 대해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한다. 둘째 짐승의 때에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칼로 죽임을 당할 자들은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셋째 짐승의 때에 성도들에게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할 것이다.

B. 땅에서 나온 두번째 짐승(11-18절)

두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11절). 두번째 짐승은 새끼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을 했다. 성경은 두번째 짐승의 권세(활동)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12-15절). 첫째, 첫번째 짐승이 지녔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처음(첫번째) 짐승 앞에서 행사할 것이다. 둘째, 치명적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첫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할 것이다. 셋째, 큰 기적

이 있는 책이다. 벌포(L. Berkhof)의 말대로 요한계시록은 결코 사도행전 식으로 해석하는 책이 아니다. 성경해석학의 기본이 필요하다. 계시록 13장도 그 상징의 내용을 잘 해석해야 한다.

그동안 13장의 짐승에 비유되는 유사(類似) 짐승은 참 많았다. 로마 제국, 네로, 칼리굴라, 교황, 니므롯, 솔로몬, 느브갓네살(단 3:6) 등을 666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심지어 반 개신교측에서는 마르틴 루터나 개신교를 666으로 보는 주장까지 있었다. 이런 식으로 666을 보면 짐승 위상에 경배치 않으면 모두 다 죽었다는 점에서 도미티안 황제, 일제식민지 시대의 강제적 신사참배제도, 김일성 위상화도 모두 666의 후보자들이 될 수 있다. 이들 모두는 두 짐승과 관련하여 해석할 때 유사성을 가지기는 하나 두 짐승의 “그림자”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요한은 666을 푸는 데는 지혜와 통명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충고하고 있다(18절).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우리말에는

조덕영 박사는?

환경화학공학과 조직신학을 전공한 공학자이자 신학자다. 한국창조과학회 대표인사 겸 창조지 편집인으로 활동했고 여러 신학교에서 창조론을 강의하고 있는 창조론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가 소장하고 있는 창조신학연구소는 창조론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 <기독교와 과학> 등 20여 권의 역저서가 있으며, 다방면의 창조론 이슈들을 다루는 <창조론 오픈포럼>을 주도하고 있다.



조덕영 박사

준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세대주의적 극단적 종말론이기 때문이다.

요즘 일부 열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있는 것은 좋으나 좌우 분간을 하지 못하고 신비주의적이고 극단적이고 긴급한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신자들의 열심을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것은 신앙을 열심으로 착각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으며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다는 착각 속에서 실은 마귀에게 이용당해 버리는 누를 범할 수 있음을 늘 경계해야 한다. 늘 바른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기 마련이다. 바르게 깨닫고 열심을 다해야지 분별을 못하고 열심을 내다가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도구가

아프리카같은 빈국의 노인이나 어린이들에게 무엇 때문에 어떻게 신체에 강제로 투여한다는 것인가? 더구나 말기 암에 걸려 흠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베리칩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은 일의 권의주의적 세계 종교 동일이나 정치 동일이 가능해진 다음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세계 종교나 정치가 통일 된다는 것은 자국의 정황상 요원한 일일 뿐이다.

넷째, 표는 강제적 매매의 수단이 된다 하였고 하였고 화폐가 있고 카드가 넘쳐나는 시대에 베리칩이 어떻게 모든 남녀노소, 모든 빈부귀천, 종교인들의 강제적 매매 수단과 관련된다는 것인지 허황된 주장일 뿐이다.


다섯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하였으나 베리칩은 짐승의 이름도 아니고 짐승의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가 아니다. 단지 바코드 소동과 유사할 뿐이다.

여섯째, 짐승이 출현하였을 때 지혜가 필요하니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고 하였는데, 먼저 이 짐승은 (1)치명적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첫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짐승이요 (2) 큰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는 짐승이요 (3)첫번째 짐승이 하던 기적을 그대로 행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을 속이는 짐승이요 (4)첫번째 짐승을 향한 이상 숭배를 노골화하는 짐승이요 (5)능력을 받아 첫번째 짐승의 위상에 생기를 주어 말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위상에 경배치 않으면 다 죽이는 권세를 가진 짐승이다. 그런데 이런 두번째 짐승은 커녕 첫번째 짐승에 해당하는 짐승도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짐승 이후에나 나타나는 666을 베리칩으로 상징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이다. 일곱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숫자로 666이라 하였는데 베리칩이 사람의 숫자 666이라는 의미와 연관성이 없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은혜는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참 평강이다. 베리칩을 가지고 구원 상실과 신앙적 불안감과 긴박한 세대주의적 시한부종말론으로 사람들을 겁 주고 인위적 열심을 이끌어내려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이다.

나가면서

결국 베리칩이 666이라는 주장은 과거 바코드 소동을 재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분명 세대주의적 긴박한 종말론에서 나온 것으로 분별을 조심해야 한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려고 불안을 떨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구원은 베리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팍스레고메나 666 해석 위해선 전체 문맥 이해해야
베리칩=666 오해할 소지 있지만 성경적 근거는 약해
바른 말씀 우선 안되면 우왕좌왕 할 위험도**

을 행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할 것이다. 넷째, 첫번째 짐승이 하던 기적을 그대로 행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다섯째, 첫번째 짐승을 향한 이상 숭배를 노골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능력을 받아 첫번째 짐승의 위상에 생기를 주어 말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위상에 경배치 않으면 다 죽일 것이다.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666)를 받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두번째 짐승이었다(16-18절). 빈부귀천, 남녀노소, 종이나 자유자나 예외없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고, 표는 강제적 매매의 수단이 될 것이고,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일 것이다. 성경은 이런 때 일수록 지혜가 필요하니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고 했다. 이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숫자로 666이다.

베리칩이 666인가?

베리칩은 좁쌀보다 약간 큰 작은 찹으로 팔이나 신체의 특정 부위에 주입하여 의학적 성과를 얻으려는 찹을 말한다. 근데 이것이 왜 앞에서 설명한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666이라는 것일까? 요한계시록은 직역을 하면 잘 풀리지 않는 많은 상

없는 숫자값(numerical value)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게마트리아(gematria)라고 한다. 하나님은 37, 예수님은 888(37*3*8), 짐승의 수는 666, 사단의 나라는 276과 관련된다. 이 게마트리아로 666을 푸는 방식이 있다. 게마트리아로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 본 많은 인물이나 사건들이 666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게마트리아로 666을 풀 때에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13장 전체 문맥과 조화하고 일치하는 666인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전체 문맥 가운데 살펴보면 대부분의 666 후보들은 666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게마트리아가 신비한 도구기는 하나 게마트리아를 절대적 성경 해석 방법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베리칩을 666이라 주장하는 분들이 베리칩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구원 여부가 달려 있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점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불안이나 공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이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베리칩 공포와 불안에 떨다가 베리칩이 아닌 정말 666이 나타나 때는 그만 사단에게 속아버리는 참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베리칩을 구원여부의 기

되기 심상인데 자국의 한국교회에 이런 불안을 동반한 신비주의가 만연된 것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제자 베드로도 사단이라고 예수님께 꾸짖음 받은 것처럼 사단의 꾀에 속지 말아야 한다(막 8:33).

베리칩이 666이 아니라는 성경적 증거

베리칩이 666이 아님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666 이전에 반드시 등장해야 할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두 짐승에 해당하는 만한 인물이나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짐승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상징성을 가지는데 대해서는 지혜로운 검토와 해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베리칩이 666이라는 생뚱한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둘째, 두 짐승이 나타난 후 두번째 짐승이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때(16-18절) 베리칩을 666이라 할 경우 두번째 짐승에 해당하는 실체가 불분명할 뿐더러 베리칩 소동은 13장이 묘사하고 있는 두번째 짐승과 정황상 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계시록 13장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종이나 자유자나 예외 없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하였으나 그 비싼 베리칩을 식량도 부족한 북한이나

자 동 차! 토네이션



남가주 지역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을 위한 차량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어려운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이란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일것입니다.

주관 : 기독교일보 후원 : NARA AUTO 바디, LA 정비 연락처 : 기독교일보 213-739-0403

Dealer No. 6265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13-453-5900
 714-743-1000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막 9 장 23 절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헤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www.familyauto.us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213-747-5900
714-743-1000

1230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당뇨에는 동의 당뇨환

동의 당뇨환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그 효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100% 순수 한약재로 되었음
2. 식사가 어느정도 완화됩니다.
3. 피가 청결해져서 최대한의 합병증이 억제됨
4. 식후에 갈 심하지 않습니다.
5. 당 수치가 조절됨에 따라 동의당뇨환의 복용량을 줄여가다가 끊을 수 있습니다.

실로암 한의원 2621 W. Olympic Bl #202 LA CA 90006 213-427-0036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과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금 매입

초박시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라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가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 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빠른 효과 치료 베니스 한의원

특별진료과목 [감기/비염/위장병] 예방 및 근본치료 원칙

- 각종 위장병, 만성변비, 방광염, 잦은 소변
- 중풍, 반신마비, 대상포진, 안면마비, 오십견
- 신장결석, 담결석 (전통비방특수한약)

침/전침/화침/블부왕/고약/보약/공진단/소화환

유학생 여행차 교통사고 건강보험상당 2270 W. Venice Blvd L.A. CA, 90006
213.271.7002 웨스팅과 베니스 사거리 테크노 링크 주차장 WWW.LAHERB.COM

황씨 냉동. 에어컨. 히팅

신속, 정확, 저렴 전지역 가능, 24시간 대기

상업용: 마켓 식당 리커, 냉동냉장, 웨어하우스 교회 센츨럴 A/C, Walk-in 냉장, 냉동설치 및 수리, Ice Cream 머신수리
가정용: LG벽걸이 A/C설치 수리, 하우스 아파트 센츨럴 A/C 냉장고, 설치 및 수리

(213)220-7131 (626)807-8799

Kate Cho 헤어디자이너 케이트 조

Man's cut \$10.00 Women's cut \$20.00

영양염, 윌빙염, 아재염 \$50.00 하이아이트, 코팅, 염색 \$50.00

매직 스트레이트 펠 \$80.00

반드시 꼭 예약 필수!! **213.505.5756**
450 S. Western #101, Los Angeles, CA 90004

골드핑거 직접제단 직접제분 양복점

삼성이 만든 명품 양복지 골든티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양복점 에서 수제양복을 입어보세요. 귀하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 30여개국 해외진출
-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텐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툰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금 삽니다 최고가 현금매입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출장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비영리단체 설립 및 면세허가 (교회, 선교단체 등)

- ▶ 처리경험 풍부
- ▶ 비영리단체 세무상담, 장부정리(Quick Book), Tax 보고
- ▶ 일반 영리 사업체 설립 및 각종 세무보고
- ▶ IRS, EDD, FTB 등 세무감사 수감

Kim & Accountancy Tel. 714-226-0900

sasafterschool.blogspot.com

민고 맡기세요. 아이들의 성적이 달라집니다 K~6

APPLE TREE ACADEMY

Math, English, ESL, Writing, Bookclub

Pick up, 전담한 식판과 함께 학교공부 준비를 100% 도와 드립니다.

213.507.5045

가디언 컴퓨터 수리

213-663-8007
213-536-4696

317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이중창문교체전문

햇빛차단 Low-E3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그레이스 최 최추신경 한방병원

www.herbsabu.com

금연클리닉 스페셜 \$200 (당문 때까지 치료)

726 S. Wilton Pl. #2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1-8228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통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홈 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499**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제작해드립니다.

제작문의 213.364.2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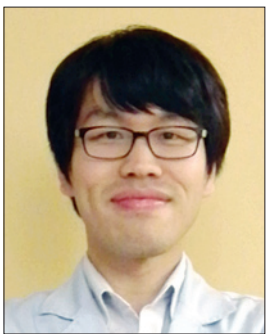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외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무료 진료로 재능 기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나누기



김진영 원장

인술로 라티노들과 절친된 젊은 한의사

[인터뷰] 베니스한의원 김진영 원장

LA 웨스턴 길과 베니스 도로 사이에 위치한 베니스한의원. 매주 목요일이면 이곳을 찾는 환자들이 유난히 많다. 이날만큼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한인들을 비롯해 라티노 일용직 노동자들까지 이곳을 찾는 환자들의 인종과 계층은 매우 다양하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이렇게 '진절할' 한의원이 또 있을까 싶다. 베니스한의원의 김진영 원장(36)이 이런 '과주기식' 재능 기부를 하게 된 데엔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

20대 후반의 푸르른 나이에 도미해 사우스베일로의한대를 졸업하고 한의원을 개업한 김원장. 그에게 있어 베니스한의원은 소중한 일터다. 그런데 그의 보금자리 앞에서 하루 종일 라티노 일용직 노동자들이 소리치르고 귀찮게 하면서 진을치고 있는게 아닌가.

이 지역이 워낙 라티노들이 많기로 유명하다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구헌날 죽치고 앉아 있으니 짜증나고 답답할 노릇이었다. 한의원 이미지도 안 좋아질 뿐더러 장사가 될 리 만무했다. 들어 오려면 단골 손님조차 떨어져 나갈 판이니 김 원장으로서선 분통이 터질 만도 했다.

잡다 못해 하루는 아내에게 하소연도 해 봤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려도 봤다. "하나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라티노 노동자들이 다른 곳으로 멀리 떠나가도록 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걸까. 한참을 기다려도 응답의 기미는 없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목사님께 상담을 청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명색이 한의사인데 저 친구들과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자들이 지닌 병은 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병 아닙니까." 목사님의 이 한마디가 그에게 커다란 깨우침으로

다가왔다. 그날 이후 그는 라티노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기 시작했다. 한명 두명 치료해 주다 보니 이전처럼 시끄럽게 난동 부리던 것도 없어졌다. 핸드캡을 지닌 환자가 들어오기도 하면 이들 라티노 친구들이 한의원 안으로 손수 부축해 주니 이미지가 전에 비해 좋아진 것은 물론, 마치 하나의 공동체처럼 상생하는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화가 오히려 복이 된 격이니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싶었다.

김 원장은 "무료로 진료해 주니 재정적으로 힘들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반대로 수입이 늘어나고 운영이 더 잘 되요"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같은 재능 기부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매주 목요일 인종에 관계없이 재정적 어려움을 지닌 경우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 단 미리 진료예약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

영과 마음, 몸의 조화 환자 대하는 마음에 치료의 시작

이렇게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김 원장은 진료할 때도 병을 단순히 몸의 차원에만 국한시키지 않는다. 마음이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크리스천인 그는 마음에 이진에 또한 영을 강조한다. 영의 아픔이 마음의 아픔으로, 다시 몸의 병으로 드러난다고 그는 믿는다. 영과 마음과 몸이라는 이 전인적인 치유가 바로 김 원장이 추구하는 치료의 핵심이다. 그는 "영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인간에 내재된 자연치유력이 복돋워지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원래의 운전함을 회복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병원을 찾은 '고객'으로 보지 않는다. 환자를 고객으로 인식하는 그 생각 자체를

잘못된 치료의 시작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반대로, 환자를 고객이 아닌 하나의 인간,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의 인격으로 대할 때 이미 치료는 시작된다고 그는 말했다.

한의학적 접근법으로 근본 치유 위장병, 전립선, 대상포진에 효험

베니스한의원은 위장병을 비롯해 전립선, 대상포진, 신장 결석, 당 결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찾는다. 양풍과 불부항 등으로 위장병 치료에 효과가 크고, 결석 등으로 인한 심한 통증도 한의학으로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위장병 환자의 경우, 속이 쓰리고 불편해서 병원을 찾지만 기능적인 처방에 낫는 듯하다가 재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김 원장은 한의학적 접근법으로 위장병을 근본적으로 다스린다. 김 원장은 "한의학적으로 스트레스는 기체(氣滯), 담음(痰飲)을 만들어 기혈의 순환을 막고 원활한 신진대사를 방해해 소화 기능의 이상을 유발한다"며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단지 알레르기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의 변화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개선해 면역력과 항상성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베니스한의원에서는 유학생을 위한 보험 상담도 하고 있다. 김 원장은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비만과 건강 악화를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운동을 하다가 발이 빠거나 다쳐도, 보험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 처리를 저렴하게 진료받을 수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주소: 2270 Venice Blvd. Los Angeles, CA90006
전화: 323-373-1544
웹: www.LAHERB.com

정한나 기자

말기 전립선 암 이렇게 극복했다

[간증] 임마누엘복음선교회 대표 구기조 목사

임마누엘복음선교회 대표 구기조 목사. 한때는 남가주 한인목사회 회장을 역임하며 왕성히 활동했고 이임 후에도 증경회장으로 교계의 다양한 연합 사업에 뛰어들었던 그에게 3년 전 암이라는 병이 찾아왔다.

전립선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는 순식간에 30 파운드의 체중이 줄며 90대 노인이라 해도 믿을만큼 몸이 수척해 갔다.

그러던 중 우연히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라는 책을 읽고 수소문 끝에 이 책의 저자인 한동규 박사를 찾아냈다. 한 박사는 당시 스페인에서 암 환자들을 치료해 주고 있었다.

그는 한 박사의 처방대로 환약과 주사를 통해 4달만에 암이 완치되는 기적을 체험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치료법을 다른 암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전하고자 미주 지역 책임자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본인이 암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3년 전 주치의로부터 몸이 이상이 있음을 듣고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 보니 전립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조직검사 결과 전립선의 75%에 암세포가 퍼져 있었고 거의 말기 수준이었다. 병원에서는 방사선 침을 몸에 넣어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 죽어가는 안될 것같은 세포까지 암세포와 함께 죽게 되고 결국 몸의 저항력이 약해져 더욱 죽음을 축전된다고 경고했다. 즉, 불치라는 것이었다.

결국 사형 선고를 받은 나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었느냐며 하나님께 매달렸다.

-기도의 응답이 있었나?

그렇다.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이사하면서 한 책들을 나에게 주었는데 그 중 한 권이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라는 책이었다. 스페인에 살고 있는 한동규 박사가 암치료를 관해 쓴 책이다.

나는 자녀들을 불러 모아 놓고 양방으로 치료를 할지, 한 박사의 방법을 사용할지 물어 보았다. 어차피 양방은 해방이 될 수 없었기에 자녀들도 후자를 지지해 주었다.

나는 일주일동안 한 박사를 수소문해 스페인에 있던 그를 찾아

냈고 전화연락을 해 내 상황을 설명했다. 우편으로 환약과 주사를 받게 됐고 그의 설명대로 주사와 환약을 먹기 시작했다.

-효과가 있었는가?

3개월 정도 했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어 전화를 해 보니 그는 더 먹어 보라고 권했다. 그런데 4개월이 되니 전립선 쪽에 구멍이 나며 고름이 나왔다. 한 박사는 낫고 있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15일 정도 고름을 짜내다 보니 무엇인가 하얀 덩어리가 나왔다. 그 후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보니 암수치를 나타내는 PSA 수치가 정상이 되어 있었다. 보통 4까지를 정상으로 보는데 현재 나는 0.30이다. 한창 암과 싸울 때에는 8에서 10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다. 의사도 이 결과에 깜짝 놀랐다. 지금은 입맛도 예전처럼 돌아왔다.

-한동규 박사에 관해 소개해 달라.

그는 25년간의 연구 끝에 암을 80-90%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들어 냈다. 말기암이라 할지라도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70% 이상 치료할 수 있는 약이다.

그 역시 두번이나 암에 걸려 목숨이 위중한 처지에 이르렀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온갖 실험과 연구를 거듭해 자신의 암을 고쳐냈다. 또 수많은 환자들을 고쳤다.

그의 치료법은 몇 가지 식물에서 추출한 물질을 중앙이 생긴 부위에 주사해 암 덩어리가 괴사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이 세포들이 누런 고름으로 변해 피부 밖으로 빠져 나오게 된다.

이 방법은 치료 효과가 빠르고 치료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치료를 받는 동안 통증이 심하고 암 덩어리가 괴사되어 빠져 나온 자리에 큰 흉터가 남는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 치료법은 죽어야 될 세포만 찾아서 죽이므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암 치료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한때 파나마에서 대통령 측근에 있는 암환자를 여러 명 고쳐 파나마 대통령의 주치의로 일하기도 했고, 스페인암연구소에서도 근무했다. 현재 스페인 자연요법 암 애이즈 마약협회 회장으로서 활동하는 한편, 현재 마



구기조 목사가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간증하고 있다.

드리드 중심가 서울 거리에서 암을 비롯해 난치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1998년 5월에 한국에 와서 자신이 만든 암 치료약을 개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대통령에게 보냈으며 1999년 1월에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라는 책을 펴냈다.

-그의 치료법은 어떤 암이든 치료 가능한가?

당연히 초기일수록 더 치료하기 쉽다. 그러나 우연히 검사하거나 건강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암은 주로 2기나 3기다.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치료법은 어떤 암이든 다 효과가 있다. 4기가 말기인데 적어도 5개월 정도는 기간이 있어야 치료가 가능하다.

-그럼 한 박사의 처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치료비용은 얼마나 들게 되나?

4개월동안 총 8천원 치료 비용이 든다. 이 기간동안 주사 30개, 환약 90봉지가 제공된다. 그러나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환자라면 치료 기간이 더 길린다. 치료받는 동안 특별히 가려야 할 음식은 없다.
문의) 213-235-5800
213-252-9036
빅터 박 기자

'본 글은 간증입니다. 즉, 의학적이거나 의사의 소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인터넷 당사자의 개인적 경험과 의견임을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이 기사의 내용에 대해 의학적 책임을 기지나 본지가 질 수 없음도 알려 드립니다.'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우리 가족은 아이토크비비로 통한다!

로컬, 장거리,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글로벌 플랜 ~~\$24.99~~

\$9.99 /월

첫 3개월간, 이후 \$24.99/월

행사기간 2012년 5월 31일 까지

무료 부가서비스 070 마이코리아넘버** 아이토크글로벌 매월 500분

한국 070전화가 필요없다! 한국 전화번호 제공 내 휴대전화로 국제 전화를

중앙일보/인태넷 통신사(www.komcast.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전]

"3년연속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30일 환불 보장]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1.800.872.2902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1.800.875.8318

고객상담시간: 365 일 오전 6시 ~ 저녁 10시 30분 (P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받으세요.

* 1인 일반트-프로모션 기간 첫 3개월을 포함해 총 15개월의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은 행사기간 내 글로벌플랜 또는 글로벌 플랜에 가입한 신규 고객에 한합니다. 계약기간 내 서비스를 약하는 경우, \$69.99의 약정금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 일반 트랜잭션 중 금액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예식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 에 있습니다. ** 무료 부가서비스 마이코리아넘버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청구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0일 환불 보장 기간 이후 서비스 약하지 마세요.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통비 (\$29.99)가 부과됩니다. 무제한 플랜이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유선전화는 포함되지 않으며,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s 등 미국 해외 영토의 통화는 무제한 통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 을 참조하거나 고객 상담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환영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봉투 대신 인양과 같은 친환경 코어 카드 결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토크비비 공인 가입센터 모집

한인마트내 매장을 보유하고 계신분 또는 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가입센터 상담전화: 703.348.7544 (통화시간 월~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2012 최신행 EQUUS

8 스피드의 넘치는 힘과
력서리한 중후함을 느껴보세요

599+TAX (STK:052436)

Closed and lease 48 month plus tax
MSRP: \$59,650 Residual : \$29,228.5
T.D.O: \$4,995 No Security Deposit
For 12k Per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Coupon
(O.A.C)



800대를 수용하는 에쿠스를 가장 많이 보유한 북미 NO.1 현대딜러



2012 Sonata GLS

EPA 기준 대형차급 실내공간
2011년 정부 안전기준 별 5개를 획득한 최초의 중형세단

165+TAX (STK:503039)

Closed and lease 48 month plus tax
MSRP : \$22,065 Residual : \$11,033
T.D.O : \$2,299 No Security Deposit
For 12k Per Year
Plus College Rebate , Military Rebate, Valued owner Rebate
(O,A,C)



5월 한달간 무이자(0%)에 \$500을 더 드립니다.

5월 한달 푸엔테힐스 현대가 드리는 혜택

(행사기간 2012년 5월1일~31일)

1. 구입하는 모든분들께 유명 골프장에서 4분이 무료 라운딩 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2. 평생 카워시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Fleet Manager
찰리 정
213.276.8959



Sales
스티브 장
213.235.6825



Customer Care
제니 김
310.749.7599



Sales
매튜 정
714.797.3571



WWW.PHHYUNDAI.COM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s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